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일본의 ‘날개옷(羽衣)’ 설화 고찰

濟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專攻

李善兒

2013年6月

일본의 ‘날개옷(羽衣)’ 설화 고찰

指導教授 秦 恩 淑

李 善 兒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3 年 6 月

李善兒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3 年 6 月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	---

II. 본론

1. 일본의 ‘날개옷(羽衣)’ 설화

1) 일본의 ‘날개옷(羽衣)’ 설화의 선행연구	4
2) 일본의 ‘날개옷(羽衣)’ 설화	6

2. 『風土記』의 ‘날개옷(羽衣)’ 설화

1) ‘이카고 작은 강(伊香小江)’ (『近江國風土記逸文』)	10
2) ‘미호노마쓰바라(三保松原)’ (『駿河國風土記逸文』)	19
3) ‘나구 신사(奈具社)’ (『丹後國風土記逸文』)	25

3. 일본의 구전 ‘날개옷(羽衣)’ 설화

4. 일본의 ‘날개옷(羽衣)’ 설화의 모티프

1) 백조(白鳥)	38
2) 날개옷(羽衣)	40
3) 천녀(天女)	43
4) 승천 방법	44
5) 원조자	47
6) 세 가지 난제(難題)	49

III. 결론	52
---------	----

참고문헌	55
------	----

<국문초록>

일본의 ‘날개옷(羽衣)’ 설화 고찰

이선아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일어일문전공

지도교수 진 은 숙

날개옷 설화는 하늘에서 천녀가 백조나 다른 새의 모습을 하고 지상으로 내려와 날개옷을 벗고 목욕을 하다가 인간 남자에게 날개옷을 빼앗겨 그 아내가 되어 지상에 머물러 살다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유럽, 아메리카, 한국, 동아시아 지역까지 폭 넓게 전승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나무꾼과 선녀’ 혹은 ‘금강산 팔선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일본에서는 ‘날개옷’ 설화를 하늘에서 내려온 아내 이야기인 ‘천녀아내(天人女房)’ 전승에 포함시켜서 연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천녀아내 전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녀와 지상에 있는 남자가 혼인하는 이류(異類)혼인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날개옷 설화와 천녀아내 전승을 포괄하는 이야기로 ‘백조처녀’ 설화(白鳥處女說話, swan maiden)가 범세계적으로 분포한다. 백조처녀 설화는 천녀가 날개옷을 벗을 때 새로 변하는데, 보통 흰 빛을 지닌 백조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신성한 여성과 지상의 남자의 결혼을 다루는 이야기이다. 이류이면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인간인 남자와 맺어진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동일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광범위한 신화이자 전승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날개옷 설화는 천녀아내 전승과 백조처녀 설화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연구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일본의 날개옷 설화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야기는 북쪽으로는 아오모리(靑

森)에서 남쪽으로는 오키나와(沖繩)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 약 130편의 구전 설화가 채록되어 있다. 또 문헌 설화로서 『風土記』에 ‘이카고 작은강(「伊香小江」 『近江國風土記逸文』), ‘미호노마쓰바라(「三保松原」 『駿河國風土記逸文』), ‘나구 신사(「奈具社」 『丹後國風土記逸文』)의 3편의 날개옷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은 『風土記』의 3편의 날개옷 설화와 세키 게이코(関敬吾)의 『日本昔話大成 2』에 채록된 130편의 구전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날개옷 설화의 문헌 및 구전 자료를 비교 고찰한 다음, 날개옷 설화를 구성하는 여섯 모티프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상징모티프 연구에서는 문헌 설화와 구전 설화를 통틀어 일본의 날개옷 설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백조, 날개옷, 천녀’의 세 가지 모티프와 구전 설화에서만 볼 수 있는 ‘승천 방법, 원조자, 세 가지 난제’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본론의 제1장에서는 일본의 날개옷 설화의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본 후, 일본의 날개옷 설화의 개략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風土記』의 3편의 날개옷 설화를 살펴보았다.

‘이카고 작은 강’ 날개옷 설화는 천녀가 백조가 되어 날아와서 목욕을 하다가 인간 남자에게 날개옷을 빼앗기고 그의 아내가 된다. 그 후 네 명의 아이를 낳아서 하늘로 승천하고 그 아이들은 이카토미노무라지의 선조가 된다. 이는 백조천녀 설화와 천녀 시조형이 섞인 설화이다.

‘미호노마쓰바라(三保松原)’ 날개옷 설화는 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날개옷을 소나무 가지에 말리고 있었는데 어부가 날개옷을 빼앗고 신녀를 아내로 삼는다. 어느 날 신녀는 날개옷을 찾고 승천하였고 남자도 신선이 되어 승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 ‘登仙’이란 말에서는 당시 중국의 신선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전승을 토대로 謠曲 『羽衣』이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 또한 비슷하였다.

‘나구 신사(奈具社)’ 날개옷 설화는 복합·변형된 날개옷 설화라 할 수 있다. 여신이 나구 신사에 좌정하게 되는 연유를 설명하는 신사 연기담, 아라시오촌이나 나기촌의 지명 유래를 설명하는 지명 유래담, 천녀가 추방되는 용궁동자형, 천녀로 인해 노부부가 부자가 된다는 장자치부담의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구전 날개옷 설화를 살펴본 후, 제4장에서는 백조·날개옷·천녀·승천 방법·원조자·세 가지 난제의 6종류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날개옷 설화를 구성하는 6개의 모티프, 즉 백조, 날개옷, 천녀, 승천 방법, 원조자, 세 가지 난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날개옷 설화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영문초록>

A study on the fable “a robe of feathers” in Japan

Lee Seon-ah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sis director: Eunsuk Jin

The tale about robe of feathers is a story handed down among Europe, America, Korea, and East Asia; a heavenly maid descended upon the land in a shape of swan or birds. Her feather robe is stolen by a man while she's taking a bath. She was forced to be the man's wife and stayed for a while but at the end, she returned to heavens.

In Korea, the fable has been known as “the woodcutter and the fairy”, or “Mt. Geumgang and eight celestial angels.” In Japan, “the celestial raiment of an angel” is included in “celestial nymph wife” the story about descended nymph on land which is usually studied together. The “celestial nymph wife” is one of the stories about marriage between human and other beings; a man on the ground marries to a descended nymph.

Meanwhile, swan maiden that includes the robe of feathers and celestial nymph is spread throughout the whole world. In the swan maiden story, celestial nymph turned into a bird when she undresses the robe. Normally, her shape is white swan. This is a kind of marriage between holy woman and man on the ground. Celestial nymph isn't mankind but

she has a shape of human female and married to a human man. This is the common factor of this fable around the world. As this kind of stories is widespread myth and fairytale,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Japanese robe of feather story is usually studied along with celestial nymph wife and swan maiden as they are deeply related.

Robe of feather tale and similar stories in Japan is widely spread from Aomori in the North to Okinawa in the South. Currently, about 130 tales handed down orally are recorded in books. Also, as literature narratives, Ikago small river, Mihonotsubara, and Nagu Shinto, three tales are contained in Hudoki.

In this study, the object is over 130 materials handed down orally. Comparison consideration for literature and oral materials of feather robe fables has been conducted and the study focused on the symbolic meanings of six motifs which consist of the fable. In the study of symbolic motifs, it reviewed with three motifs "swan, feather robe, and celestial maiden"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fables in both literature and oral material, and the other three motifs, "the way to back to heavens, supporter, and three quests" which are only showed in oral traditions.

First, the first chapter of the main subject reviewed the former studies on Japanese version of the robe of feathers stories. Then, it described the outline of feather robe stories in Japan.

The second chapter investigated three tales in Hudoki.

"Ikago small river" tale shows that a celestial maiden came as a swan for a bath and a man stole her robe to make her marry to him. She returned to the heavens after gave birth to four babies and her children became the ancestors of Ikatominomuraji. This is the tale mixed with swan maiden and celestial nymph ancestor type.

Mihonomatzubara feather robe myth is as follows: a celestial lady

descended and hung her feather robe on a pine tree and a fisher stole it and married to her. One day, she found her clothe and returned to heavens. The fisher became a taoist and also ascended into heaven. The last part of this tale, it is clear that “man became a taoist and ascended to heaven” is influenced by Taoist ideology. And based on this folklore, “Ballad Kale” was produced which has similar storyline.

The feather robe story of “Nagu Shinto” is a complex and transformed version of feather robe. The Shinto story why the goddess sat on Nagu Shinto, the fable about the name of Arasio village or Nagi village, a boy in sea king’s palace type which is for a celestial lady who was exiled from heaven, and a fortune tale that tells an old couple became rich by a celestial maiden. This story falls in the above categories.

In third chapter, it searched orally handed down fables in Japan and the fourth chapter discussed six motifs; swan, feather robe, celestial maiden, ascending method, supporter, and three quests.

In fourth chapter, it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 of the feather robe tales in Japan with the six motif that consist of feather robe myths as the center; swan, feather robe, celestial maiden, ascending method, supporter, and three quests.

I. 서론

천녀(天女)¹⁾ 또는 선녀에 관한 이야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민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재이다. 그 중에서도 하늘에서 지상의 물가에 내려와 ‘날개옷(羽衣)’을 벗고 목욕하다 날개옷을 훔친 남자와 혼인하는 ‘날개옷’ 설화는²⁾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유럽 각 지역, 심지어는 아메리카 인디언까지 폭 넓게 전승되는 이야기이다.

날개옷 설화의 내용은 하늘에서 천녀가 백조나 새의 모습을 하고 지상으로 내려온다. 물가에서 날개옷을 벗고 목욕을 하던 천녀는 인간 남자에게 날개옷을 빼앗겨 그 아내가 되어 지상에 머물러 살다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간다.

한국에서는 ‘나무꾼과 선녀’ 혹은 ‘금강산 팔선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일본에서는 ‘날개옷’ 설화를 하늘에서 내려온 아내 이야기인 ‘천녀아내(天人女房)³⁾’ 전승에 포함시켜서 연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천녀아내 전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녀와 지상에 있는 남자가 혼인하는 이류(異類)혼인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날개옷 설화와 천녀아내 전승을 포괄하는 이야기로 ‘백조처녀’ 설화(白鳥處女說話, swan maiden)가 범세계적으로 분포한다. 백조처녀 설화는 천녀가 날개옷을 벗을 때 새로 변하는데, 보통 흰 빛을 지닌 백조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신성한 여성과 지상의 남자의 결혼을 다루는 이야기이다. 이류이면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인간인 남자와 맺어진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동일하다. 이 외에도 사라진 아내를 찾는 이야기, 변신, 금기, 날개옷 등의 여러 모티프가 파생되어 지역과 민족에 따라 변용, 재생산되면서 범세계적인 이야기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백조처녀 설화에서 문헌적으로는 기원전 1200년을 중심으로 제작된 고대 인도의 성전인 『링 웨더』에 수록된 이야기 중 ‘플루라빈스 왕과 울바시 정녀(精

1) 하늘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 신비로운 여인은 천녀(天女)·신녀(神女)·선녀(仙女) 등 여러 존재로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신성한 여인들을 총칭하여 ‘천녀(天女)’라고 칭하기로 한다.

2) ‘날개옷’ 설화, ‘우의’ 설화, ‘깃옷’ 설화라고도 부르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를 총칭하여 ‘날개옷’ 설화라 부르기로 한다.

3)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녀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天人女房을 ‘천녀 아내’라고 칭한다.

女)와의 대화'에서 등장하는 백조처녀 이야기, 북유럽의 『에다』의 ‘벨룬두르의 노래’⁴⁾, 게르만 신화에서는 발키리에(Valkyrie)⁵⁾, 독일에서는 『니벨룽겐의 노래』⁶⁾등이 전해진다.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의 『搜神記』⁷⁾에 보이는 ‘새 아내(鳥女房)’ 전승, ‘천녀의 자식인 전장의 이야기(天女兒·田章)’ 및 칠석 설화, 몽골의 ‘호리 투메드 호릴다이 메르겐’ 전승을 비롯한 부리아트(Buryat)족의 기원설화,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설화, 일본의 날개옷 설화 및 천녀아내 전승에서 백조처녀 설화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광범위한 신화이자 전승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날개옷 설화는 천녀아내 전승과 백조처녀 설화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연구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일본의 날개옷 설화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야기는 북쪽으로는 아오모리(靑森)에서 남쪽으로는 오키나와(沖繩)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 약 130편의 구전 설화가 채록되어 있다. 또 문헌 설화로서 『風土記』에 ‘이카고 작은강(「伊香小江」 『近江國風土記逸文』), ‘미호노마쓰바라(「三保松原」 『駿河國風土記逸文』), ‘나구 신사(「奈具社」 『丹後國風土記逸文』)의 3편의 날개옷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범세계적인 이야기의 모티프인 날개옷 설화를 세계 각국의 백조처녀 설화와 연구하여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헌 및 구전의 일본 날개옷 설화를 아울러서 비교·연구하여 그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風土記』의 3편의 날개옷 설화와 세키 게이코(関敬吾)의

4) 『에다』(Elder Edda)는 9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성립된 가요집으로 주로 북유럽 신화와 영웅전설에 대한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 『옛날 에다』라고 불린다. 『에다』에 실려 있는 ‘벨룬두르의 노래’는 백조처녀 설화의 요소를 갖고 있는 벨룬두르의 전설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게르만 족 사이에서 전승되어 온 이야기이다.

5) 발키리에(독일어:Walküre)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으로 전사자(戰死者)를 선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백조의 날개옷을 지나다가 남자에게 빼앗기지만 날개옷을 되찾아서 몸에 걸쳐 백조로 다시 변신하는 모티프가 등장한다.

6) 독일 기사문학(騎士文學)의 최대의 걸작이자 독일 고전문학의 최고봉의 하나로 꼽히는 작품이다. 정확한 작품성립 연대 및 작자는 미상이나, 12세기 후반에 도나우 강의 지리에 밝은 오스트리아의 기사이거나 음유시인에 의해 1200~1205년경에 쓰여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민족대이동 시대에 있었던 영웅설화가 전승되어 여러 형태로 이 작품에 집대성되었다. 하겐이 도나우 강 근처에서 백조처녀의 날개옷을 빼앗는 모티프가 삽입되어 있다.

7) 중국 4세기경 육조시대 때 동진의 역사가 간보(干寶)가 편찬한 소설집이다.

『日本昔話大成 2』에 채록된 130편의 구전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날개옷 설화의 문헌 및 구전 자료를 비교 고찰한 다음, 날개옷 설화를 구성하는 여섯 모티프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상징모티프 연구에서는 문헌 설화와 구전 설화를 통틀어 일본의 날개옷 설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백조, 날개옷, 천녀’의 세 가지 모티프와 구전 설화에서만 볼 수 있는 ‘승천 방법, 원조자, 세 가지 난제’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II. 본론

1. 일본의 ‘날개옷(羽衣)’ 설화

1) 일본의 ‘날개옷(羽衣)’ 설화의 선행연구

날개옷 설화를 포함한 일본의 천녀아내 전승에 관한 연구는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에서 시작되었다. 야나기타는 다음과 같이 처음으로 ‘천녀아내(天人女房)’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천녀아내 전승을 설명하였다.

하늘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내려와 인간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이야기는 일본 본토나 오키나와는 물론이고 또 원근(遠近)의 여러 나라에도 널리 분포하고 있다. 우리들은 여기에 ‘천녀아내(天人女房)’라는 이름을 부여하여 주로 옛날이야기(昔話)나 민간구승(民間口承)의 문예로 이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드물게 아직도 오래된 전설 즉 아주 옛날에 있었던 사적(事蹟)으로서 믿고 전해져 온 것도 있다.⁸⁾

그러나 야나기타는 『竹取物語』에서 날개옷 설화까지를 하나의 범주에 넣어서 논하고 있어서 천녀아내 전승을 지나치게 확대하였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야나기타의 뒤를 이어서 다카키 도시오(高木敏男), 마쓰무라 다케오(松村武雄) 등에 의해서 백조처녀와 신화를 접목시켜 신화학적 접근방법으로 연구되었다.⁹⁾

세계 제2차 대전 후의 연구는 세키 게이고를 시작으로¹⁰⁾ 이시와라 야스요(石原綏代), 우스다 진고로(臼田甚五郎), 기미시마 히사코(君島久子), 오자와 도시오(小沢俊夫), 쓰보이 히로후미(坪井洋文) 등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되었다.¹¹⁾ 이들 연구는 천녀의 날개옷이 주로 벗짚단과 같은 곡식 아래에 숨겨져 있는 형태의

8) 柳田国男 「旅と伝説について」 『定本柳田国男集』(第五卷) 筑摩書房. 1962. p.486

9) 高木敏男 「羽衣伝説の研究」와 松村武雄 「白鳥処女説話随考」 등의 일련의 논고가 있다.

10) 세키 게이고는 본격적으로 ‘천녀아내’ 전승을 연구하였다. 그 성과가 『関敬吾著作集2:昔話の歴史』 『日本昔話大成第2卷:本格説話』 등의 일련의 연구서로 제출되었다.

11) 石原綏代 「南西諸島の天人書房譚」 『<沖繩>集大成-叢書わが沖繩 第4卷』, 臼田甚五郎 「天人女房その他」 『天人女房その他-昔話叙説 3』 등.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 되어 있어서 곡령(穀靈)신앙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로 파악하였다. 우스다는 날개옷이 주로 벚짚단 밑에 숨겨져 있는 점에 주목하여 벼농사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반면에, 기미시마는 남자 주인공이 천상에서 겪는 세 가지 시련이 밭농사와 연관되는 점에 주목하여 설화의 배후에 화전경작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중국 남부 지방·오키나와·규슈를 동일한 ‘날개옷 설화 문화권’에 포함해서 논하였다. 또 오자와는 세계의 이류혼인담과 비교하여 일본의 날개옷 설화의 특징을 ‘농민적 천인(農民的 天人)’의 성격에 있다고 보았으며, 쓰보이는 날개옷 설화의 분포와 화전농경지대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¹²⁾

이처럼 일본의 날개옷 설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날개옷을 숨긴 장소나 천상에서 부여된 세 가지 난제에 주목하여 설화의 배경 문화를 찾는 연구¹³⁾가 중심이었다.

이 외로 비교문학적 입장에서 유럽의 백조처녀 설화나 중국의 날개옷 설화를 비교하여 일본의 날개옷 설화의 연원을 찾는 연구나¹⁴⁾, 신화적인 측면과 접목하여 신혼(神婚)설화나 토테미즘과 연계한 연구¹⁵⁾도 다소 보인다.

한국에서의 일본의 날개옷 설화 연구는 주로 김화경·김환희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날개옷 설화를 나무꾼과 선녀 설화와 비교하여 고구려나 신라 계통의 나무꾼의 선녀 이야기가 일본에 수입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김화경은 일본의 날개옷 설화가 고구려부터 건너갔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들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신격이 고구려와 관련되어 있으며 전승지 역시 고구려 사람들의 일본진출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즉, 삼국시대에 고구려의 영토였던 북청이나 원산에서 일본의 도야마(富山)나 돗토리(鳥取)로 가는 해로가 존재했다는 조희승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 고구려의 나무꾼과 선녀 설화가 이 해로를 따라 일본의 서해안 일대로 전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¹⁶⁾

12) 小野寛·桜井満『上代文学研究事典』おうふう.1996. pp.453-455

13) 稲田浩二『昔話の源流』, 大林太郎『稲作の神話』, 君島久子『日本民間伝承の源流』 등의 연구가 있다.

14) 井野川潔 「天女伝説の渡来と移動」 『日本なかの朝鮮文化社』2号, 君島久子 「羽衣説話の生業形態に関する一試論」 『岐阜聖徳学園大学紀要』37号, 篠田知和基 「天人女房と世界の類話」 『広島国際研究』13号 등의 연구가 있다.

15) 三浦佐之 「寄り来る神の婚—その神話的性格と展開」 『成城文芸』72号, 角木純 「羽衣伝説研究：発生理解のための一仮説」 『日本文学』37号 등의 연구가 있다.

16) 김화경 「일본 날개옷 설화의 연구-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설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고찰」 『語文

김환희는 손진태, 권영철, 최상수, 성기열, 김기창, 김화경 등에 의하여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설화가 연구되었지만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구비전승의 현장에서 많이 채록된 천상 시련 극복형 설화들을 다루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전술한 김화경의 연구가 ‘천상 시련 극복형’을 제외하고 논한 점을 지적하고, 일본의 날개옷 설화가 백제나 신라를 거치지 않고 동해를 거쳐서 일본 서해안 지방으로 흘러갔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나무꾼과 선녀 설화가 고구려에서 신라 또는 백제를 거쳐서 이즈모(出雲) 지방으로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¹⁷⁾

이상 일본의 날개옷 설화의 선행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날개옷 설화의 배경문화를 찾는 연구나 세계 각국의 백조처녀 설화와의 비교, 한국과 중국과의 비교 연구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백조처녀 설화나 한국·일본과의 비교연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헌 및 구전의 일본 날개옷 설화를 아울러서 비교·연구하여 그 실체를 밝히는 기초 작업이 우선시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2) 일본의 ‘날개옷(羽衣)’ 설화

날개옷 설화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분포상황을 보면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의 본토, 북쪽으로는 사할린 그리고 홋카이도(北海道)의 아이누족에게도 전승되며, 시베리아·만주·중국의 산둥반도(山東半島)로부터 주로 연안을 따라 남하하여 광둥(廣東)지방에 이르고, 다시 베트남, 필리핀, 자바·보르네오 제도, 그리고 태평양의 뉴헤브리데스 섬까지도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¹⁸⁾

한편, 일본에서는 날개옷 설화 이외에도 백조처녀 설화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천녀아내 전승이 있는데 북으로는 아오모리(靑森)에서 남으로는 오키나와(沖繩)까지 널리 분포되고 있다. 천녀아내 전승은 날개옷 설화와 마찬가지로 인

학』한국어문화회, 2007

17) 김환희 「〈나무꾼과 선녀〉와 일본〈날개옷〉설화의 비교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가능성」 『열상고전연구』 열상고전연구회, 2007

18) 성기열 「民譚 ‘선녀와 나무꾼’의 韓日比較」 『신라문화』 제3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2. p.139

간계와 천상계의 두 무대에 걸쳐있는 이야기로 주인공은 천녀이다. 천녀는 인간계인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계의 남자와 결혼하여 많은 풍요와 복을 주고 나서 다시 천상계로 돌아간다. 천녀아내 전승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의 여성과 결합하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어 ‘이류아내담(異類女房譚)’이라고도 불린다.

천녀아내 전승은 이류아내담과는 달리 인간계의 남자는 적극적 관심과 의지에 의해 천상계에서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는 천녀를 지상에 머물게 하여 아내로 삼는다. 천녀는 남자와는 달리 애초부터 수동적인 태도로 거의 남자가 하는 대로 따른다.¹⁹⁾ 이처럼 천녀아내 전승은 날개옷을 지닌 천녀가 주로 여주인공으로 언급되어 있어서 날개옷 설화와 천녀아내 전승을 동일시하여 채록, 연구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날개옷 설화에 천녀아내 전승을 포함하여 논하기로 한다.

일본의 날개옷 설화의 전반부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 a. 천녀가(혹은 천녀들이) 날개옷을 벗고 목욕한다.
- b. 인간 남자가 그 중 한 명의 날개옷을 훔치고 천녀를 아내로 맞는다.
- c. 결혼 후 몇 명의 아이를 낳는다.
- d. 천녀는 잃었던 날개옷을 찾아내어 입고 하늘로 올라간다.
- e. 남자도 아내의 뒤를 따라 하늘로 가거나 지상에 남겨진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구전되고 있는 날개옷 설화의 후반부 내용은 천녀가 남긴 아이들이 시조가 되거나 남자가 천녀의 승천 후에 아내를 찾으러 가서 천상에서 펼쳐지는 갖가지 이야기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남자는 원조자의 도움으로 승천 방법을 알거나 천녀가 남긴 쪽지를 보고 짚신 999 켤레, 혹은 소 999 마리를 비료로 땅에 묻고 무럭무럭 자란 넝쿨을 타고 올라간다. 하늘에서 천녀의 아버지가 부여하는 세 가지의 난제를 해결하나 오이²⁰⁾를 잘못 잘라서 거기서 홍수가 터져

19) 稲田浩二 『昔話の源流』 三弥井書店. 1997 pp.131-132

20) 구전의 날개옷설화에서는 유독 瓜・胡瓜・南瓜등이 많이 나온다. 『日本国語大辞典(縮刷版)2』에서 “瓜는 덩굴성 식물로 주로 오이(キュウリ), 수박(西瓜), 겨울참외(冬瓜), 여주(ニガウリ), 호박(唐茄子), 쥐참외(カラスウリ) 등이 있다. 옛날에는 특히 참외(マクワウリ)를 말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다.(p.70) 김환희의 앞 논문에서도 도 瓜(ウリ)를 참외나 쥐참외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고유한 행사인 타나바타마쓰리(七夕祭り)

나와 은하수가 생겨나고 천녀와 헤어지게 된다. 후반부는 여러 형태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어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기미시마는 구전의 날개옷 설화의 결말에 주목하여 은하수가 생겨나 천녀가 7월 7일 만나자고 한 것을 남자가 7월 7일로 잘못 들어 일 년에 한 번 7월 7일 밖에 만날 수 없다는 ‘칠석형’, 천녀의 아버지에게 부여받은 세 가지의 난제를 해결하여 천녀와 행복하게 살거나 혹은 난제 실패로 천녀와 남자가 헤어지게 되는 ‘난제형’, 난제형과 칠석형이 결합된 ‘칠석결합형’으로 나누고 있다.²¹⁾

세키 게이고는 날개옷 설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날개옷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설화는 천녀, 즉 조녀(鳥娘)가 젊은이에게 날개옷을 빼앗기고 어쩔 수 없이 혼인한다. 그러나 천녀는 다시 날개옷을 되찾아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주제로 한 것이다. 이것이 본원적인 내용에 모든 민족들에게 공통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다.²²⁾

그리고 이야기의 결말에 따라, ‘시조 탄생형·우지가미형(氏神型)·이별형·재회형·행복한 혼인형·양녀형·난제 구혼형’의 일곱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에 대해 미야오카 히로코(宮岡洋子)는 『日本昔話事典』에 수록되어 있는 천녀아내 전승을 조사하여, 천녀가 벗짚단 (또는 천장, 집 중앙에 있는 기둥, 함 등) 아래서 날개옷을 찾아내어 아이를 데리거나 또는 홀로 하늘로 날아 가버리는 ‘이별형’, 남자가 천녀를 뒤쫓아 하늘로 올라가서 재회를 요구하는 ‘천상 방문형’, 남자가 대홍수로 인해 떠내려가는 도중에 천녀가 “7일, 7일에 만나자”고 한 것을 남자가 7월 7일로 잘못 들어 일 년에 한 번 칠석에만 만나게 된다는 ‘칠석결합형’이라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미야오카는 주로 ‘이별형’ 모티프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이에 비해 세키 게이고는 후반부의 다양한 결말에 따라서 유형 분류를 했으며, 기미시마는 중국의 날개옷 설화와 결합하여 ‘칠석’이란 모티프와 천상에서의 세 가지 난제에 중점을 두어 유형 분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때 오이로 만든 말과 가지로 만든 소의 모형을 제물로 하며, 주로 오이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 칠석 설화와 연계되는 전승인 만큼 칠석제와 연관 지어 용어를 설정해야 된다고 보고 瓜를 오이로 표현하였다.

21) 君島久子 「羽衣説話の生業形態に関する一試論」 『岐阜聖徳学園大学紀要』 37号. 1999년 2월. p.289

22) 関敬吾 『関敬吾著作集 2 - 昔話の歴史』 同朋舎. 1983. pp.156-157

일본의 날개옷 설화의 문헌 설화는 앞서 얘기했듯이 『風土記』에 3편의 자료가 있고, 구전 설화로는 전국적으로 약 130편 분포되어 있으며 그 전승 양상 또한 풍부하고 매우 다양하다. 우선 제2장에서는 『風土記』에 실려 있는 3편의 문헌 설화를 살펴본 후, 제3장에서는 구전(口傳) 날개옷 설화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날개옷의 구전 자료는 세키 게이고의 『日本昔話大成 2』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날개옷 설화를 구성하는 여섯 모티프의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2. 『風土記』의 ‘날개옷(羽衣)설화’

1) ‘이카고 작은 강(伊香小江)’ (『近江國風土記逸文』)

<자료 1>

노인이 전하는 이야기다. 오미국(近江国) 이카고군(伊香郡) 요고향(与胡郷). 이카고의 작은 강(伊香小江)은 요고향의 남쪽에 있다. 하늘에서 여덟 천녀(天の八女)가 백조가 되어 내려와 강 남쪽 물가에서 목욕을 했다. 그때 서쪽 산에서 이카토미(伊香刀美)라는 청년이 멀리 백조를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이 매우 기이했다. 그래서 혹여 신이 아닌가 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말로 신이었다. 이카토미는 홀연히 애정의 마음이 일어나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에 이카토미는 물레흰 개를 보내어 하늘나라의 날개옷 중에서도 가장 젊은 여자의 옷을 훔쳐오게 해 이를 숨겼다. 그래서 일곱 천녀는 천상으로 날아 올라갔으나 가장 젊은 천녀는 날아갈 수가 없었다. 하늘 길이 영원히 막혀버려 천녀는 결국 이 지상 사람이 되었다. 천녀들이 목욕하던 물가를 지금도 신의 나루터(神の浦)라 부르는 것은 이런 연유 때문이다. 이카토미는 천녀와 부부가 되어 이곳에 살며 2남 2녀를 낳았다. 형 이름은 오미시루(意美志留), 동생 이름은 나시토미(那志登美), 장녀는 이제리히메(伊是理比咩), 차녀 이름은 나제리히메(奈是理比売)라고 한다. 이들은 이카고노무라지(伊香連)의 선조이다. 후에 천녀는 날개옷을 찾아내어 입고 하늘로 올라가고 홀로 남겨진 이카토미는 한없이 슬프게 울었다고 한다.(「伊香小江」 『近江国風土記逸文』)²³⁾

위의 ‘이카고 작은 강(伊香小江)’의 날개옷 설화는 나라시대 8세기에 편찬된 『近江國風土記逸文』으로 『帝皇編年記』²⁴⁾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이카고

23) 이하 『風土記』의 인용은 秋本吉郎 『風土記』(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1958 에 의한다.

古老の伝へて曰へらく、近江の国伊香の郡。与胡の郷。伊香の小江。郷の南にあり。天の八女、俱に白鳥と為りて、天より降りて、江の南の津に浴みき。時に、伊香刀美、西の山にありて遙かに白鳥を見るに、其の形奇異し。因りて若し是れ神人かと疑ひて、往きて見るに、實に是れ神なりき。ここに、伊香刀美、即て感を愛生して得り還去らず。窃かに白き犬を遣りて、天羽衣盗み取らしむるに、弟の衣を得て隠しき。天女、乃ち知りて、其の兄七人は天上に飛び昇るに、其の弟一人は得飛び去らず。天路永く塞して、即ち地民と為りき。天女の浴みし浦を、今、神の浦と謂ふ、是なり。伊香刀美、天女の弟女と共に室家と為りて此処に居み、遂に男女を生みき。男二たり女二たりなり。兄の名は意美志留、弟の名は那志登美、女は伊是理比咩、次の名は奈是理比売、次は伊香連等が先祖、是なり。後に母、即ち天羽衣を捜し取り、着て天に昇りき。伊香刀美、独り空しき床を守りて、吟詠すること断まざりき。

(「伊香小江」 『近江国風土記逸文』 pp. 457-459)

24) 『帝皇編年記』는 14세기 가마쿠라(鎌倉)시대 말 승려 나가요시(永祐)가 고문서와古기록에서 발췌하여 편년체로 기술한 역대천황의 연대기이다. 사본에 따라 『歴代編年集成』 『帝王編年集成』 『歴代編年記』 『扶桑編年録』 등의 여러 이름이 있다. 원래는 진무천황(神武天皇)에서 북조의 고엔유우천황(後円融天皇)까지 있었으나 현재는 마지막 3권이 산일되어 고후시미천황(後伏見天皇, 가마쿠라시대 후기 13세기말)까지

작은 강' 설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미국(近江國) 이카고군(伊香郡) 요고향(與胡郷) 남쪽의 작은 강가에 하늘에서 여덟 천녀가 백조가 되어 내려와 목욕을 했다. 그때 '이카토미(伊香刀美)'라는 젊은이가 이를 보고 하얀 개를 보내 가장 젊은 여자의 날개옷(天羽衣)을 훔쳐오게 해 숨겼다. 그래서 날개옷이 없는 천녀만 지상에 남아 이카토미와 부부가 되어 2남 2녀를 낳았는데 이들은 이카고노무라지(伊香連)의 선조이다. 후에 천녀는 날개옷을 찾아내어 하늘로 올라가버리고 남겨진 이카토미는 슬프게 울부짖었다고 전해진다.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곳은 요고호(余呉湖)²⁵⁾로 지금의 시가현(滋賀縣) 이카고군(伊香郡) 요고마을(余呉村)²⁶⁾에 해당한다. 요고호 북쪽해안에는 천녀가 날개옷을 걸었다고 전해지는 버드나무가 남아있어 날개옷 전승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 설화를 앞에서 제시한 날개옷 설화의 기본유형과 비교해 보면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모티프들이 동일하다.

- a. 천녀들이 날개옷을 벗고 목욕한다.
- b. 인간 남자가 그 중 한 명의 날개옷을 훔치고 천녀를 아내로 맞는다.
- c. 결혼 후 4명의 아이를 낳는다.
- d. 천녀는 잃었던 날개옷을 찾아내어 입고 하늘로 올라간다.
- e'. 남편은 지상에 남겨지고, 네 아이는 이카고노무라지의 시조가 된다.

a에서 d까지 날개옷 설화의 기본 유형을 따르고 있지만 마지막 결말에서 '남자도 아내의 뒤를 따라 하늘로 가거나 지상에 남겨지는' 모티프 e도 비슷하나 네

의 부분밖에 전해지지 않는다.

高柳光寿、竹内理三『角川 日本史辞典 第三版』角川書店. 1966. p.648

25) 요고 호(余呉湖)는 시가현(滋賀縣) 이카고군(伊香郡) 요고마을(余呉村), 현(縣)의 북부에 위치한다. 비와 호(琵琶湖)의 북쪽 끝. 시즈카산(賤ヶ岳, 422m) 북쪽 산기슭의 호수. 호수 면 고도는 비와 호보다 48m 높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 쌓여있고 옛날에는 유입하천이 없어 조용했기 때문에 '鏡湖'라고 불렸다. 비와 호를 큰 강이라 한 것에 대해 '이카고(伊香)의 오미(近江)'라고 불린다.

浮田典良・中村和郎・高橋伸夫『日本地名大百科』小学館. 1996. p.1191

26) 요고마을(余呉村)은 시가현(滋賀縣) 이카고군(伊香郡). 현의 최북단에 있는 마을. 마을이름은 고대 중세의 향명, 장원명으로 비와 호(琵琶湖)북쪽 끝 가까이 있는 요고 호(余呉湖)에 의한다. 1954년 요고(余呉), 니우(丹生), 카타오카(片岡) 3개의 마을이 합병하여 요고마을(余呉村)이 되었다. 마을 지역의 약 75%가 산림으로 평지는 요고 강(余呉川)과 다카토키 강(高時川)의 곡저평야와 남부에 편재한다. 시즈카 산(賤ヶ岳)이 남단의 북쪽 해안에 서있다.

浮田典良・中村和郎・高橋伸夫. 앞의 글. p.1190

명의 아이들이 이카고노무라지의 선조가 된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변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날개옷 설화의 유형에서 보면, 천녀 혼자만 하늘로 올라가고 남편은 지상에 남게 되어 부부가 헤어지는 ‘이별형’에 해당하며, 또 남겨진 아이들이 이카고노무라지(伊香連)의 선조라고 하여 ‘시조 기원담’에 해당한다.

날개옷 설화에서 보통 여러 명의 천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연못이나 강 등에서 날개옷을 벗거나, 혹은 백조가 인간으로 변신하여 물놀이나 목욕을 한다. 이 설화에서는 여덟 천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다. 숫자 ‘8’은 예로부터 일본에서는 성스러운 숫자이기는 하지만, 천녀의 수가 8명으로 한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세키 게이고의 『日本昔話大成 2』을 참고하여 하강한 천녀의 수를 조사하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천녀의 수	예 (지역)
1 명	1例 (青森県 津軽郡)
2~3명	2例 (徳島県 三好郡, 広島県)
3 명	3例 (熊本県 阿蘇郡, 埼玉県 所沢市, 山形県)
4~5명	2例 (富山県 西砺波郡, 新潟県 北魚沼郡)
7 명	2例 (鳥取県 西伯郡, 福島県)
8 명	2例 (京都府 綾部市, 長野県 小県郡)
다 수	5例 (香川県 三豊郡 志々島, 岡山県 後月郡, 愛知県 新城市, 熊本県 阿蘇郡, 福島県)

이 외에 하강한 천녀의 수가 확실하게 언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즉 하강하는 천녀의 수는 1명·2~3명·4~5명·7명·8명이며 그 외 다수(たぐさん, 数人, 大勢)이거나 언급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일정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카고 작은 강’의 날개옷 설화에서 하강한 천녀의 수가 ‘8명’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나무꾼과 천녀 설화에서도 하늘에서 하강하는 천녀의 수는 주로 3명이나 8명이다. 또 하강한 천녀의 수를 한정된 ‘금강산 팔천녀’ 같은 이야기도 있다. 중국이나 아시아 쪽에서 발견되는 날개옷 설화만 하더라도 하강하는 천녀는 주로 3명이나 8명인데, 그 중에서 2명이나 7명의 천녀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천녀는 지상에 남게 되는 이야기가 많다.²⁷⁾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카고 작은

27) 중국의 전승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조녀(鳥女)는 주로 7, 8명이다. 『搜神記』에는 6, 7명의 날개옷을 입은 천녀가 나오며, 『玄中記』의 전승에서는 8명의 천녀가 나온다. 일본의 사이타마(埼玉) 지역에서 전승되는

강'의 날개옷 설화에서 천녀의 수가 8명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한국 혹은 중국의 날개옷 설화가 전파되어 온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되지만 이에 대해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여 단언할 수 없다.

위의 '이카고 작은 강'의 날개옷 설화는 천녀가 목욕했던 곳의 유래를 전하는 '지명 유래담'이자 또 이카고노무라지의 '천녀 시조형'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 즉 지금의 시가현인 오미국 이카고군 일대에 사는 이카토미 가문의 조상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다. 『新撰姓氏錄』에 의하면 이카토미의 조상은 아메노코야네 노미코토(天兒屋命)이고, 아메노코야네노미코토(天兒屋命)의 조상은 아메노미타카 누시노미코토이다.²⁸⁾ 이카토미가 천녀를 시조로 삼는 것은 조상의 출자에 신성성을 부여하려는 의도이지만, 혈연을 통해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천녀를 현실의 인간과 지상에 연결시키려는 고대인의 심성이기도 하다. 천녀를 시조로 삼는 천녀 시조형은 일본 각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오키나와에 전승되는 '삿도왕(察度王)' 이야기를 참고로 살펴보기로 한다.

오쿠마노우히야(奥間大親)²⁹⁾라는 젊은이가 샘에서 목욕하고 있는 천녀를 보다가 소나무에 걸려있는 천녀의 날개옷을 숨긴다. 하늘로 돌아갈 수 없는 천녀는 그의 아내가 되어 1남 1녀를 낳았다. 그런데 아버지의 부재중에 오쓰루(お鶴)라는 여덟 살 딸아이가 동생을 업고 “여섯 기둥, 여덟 기둥 높은 창고 안, 벗짚단 아래 조 이삭아래 날개옷이 숨겨져 있다”는 내용의 자장가를 부른다.³⁰⁾ 자장가 소리를 들은 천녀는 옷을 찾아 하늘로 올라가고, 천녀가 낳은 아이는 후에 삿도왕(察度王)이 되었다고 한다. 삿도왕은 14세기(1321년~1395년)에 살았던 현존 인물로 류큐(琉球) 국왕의 한 사람이다. 신호(神号)는 우후마모노(大真物)이며 삿도왕은 천녀를 어머니로 둔 천손계의 전설을 지니고 있다. 즉 삿도왕의 출생을

이야기에는 7명이 등장한다. 関敬吾『関敬吾著作集2:昔話の歴史』同朋舎. 1982. p.168

그 외, 『몽골 민간 신화』를 참고해서 몽골의 날개옷 설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백조나 천녀의 하강 수를 조사해보니, 주로 3명이었다. 호리 투메드 호릴다이 메르겐 9명, 호리도오이 메르겐 3명, 호레도이 메르겐 3명, 호리도이 몇 명, 아주 오래 전의 한 젊은이 이야기 3명, 마니호아르 천녀 3명이다.

28) 秋本吉郎校註『風土記』(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1958. p.458에서 재인용

29) '오쿠마우후야', '우쿠마우후야' 라고도 불림

30) “わが按司の飛び衣、わが按司の舞い衣、六つ股の蔵に、八つ股の内に、稲束の下に、粟束の内、置き古みしちよん、置きぎるしちよん” 또 오키나와에 전해지는 메카루하루(銘刈原)의 날개옷 전승에도 “ 부모의 날개옷은 / 낱아준 부모의 날개옷은 / 베어 둔 벗짚단 아래 / 베어 둔 조 이삭 아래 / 여섯 기둥 높은 창고 속에 있네 / 여덟 기둥 창고 속에 있네. (初親の飛衣は、産親の飛衣は、稲束に刈り込め、粟束に刈り込め、六つ股倉の上であり、八つ股倉の上であり)”라고 장녀가 동생을 업고 자장가를 부른다.

하늘에 두어 신성성을 부여하였다.

또 가고시마현(鹿兒島県) 오오시마군(大島郡) 기카이지마(喜界島)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서는 천녀가 1남 2녀를 낳았는데 언니는 데리고 올라가고 장남은 촌장, 차녀는 무녀가 되도록 유언하여 머리카락을 남기고 떠난다. 이외에도 천녀는 세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날개옷을 찾아 아이들을 왼쪽, 오른쪽 옆구리에 끼고 다른 한 명은 앞으로 안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나 다시 아이들을 지상으로 내려 보내면서 형은 도키(甞), 언니는 노로(祝女)³¹⁾, 여동생은 유타(巫)의 직능을 부여하였는데 이로부터 이러한 직능의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³²⁾ 천녀인 어머니가 자식들을 지상에 내려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능력을 주고 그들의 행복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천녀를 시조로 하는 이야기, 즉 천녀 시조형은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의 날개옷 설화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천녀 시조형 전승의 특징은 천녀가 곡물, 가축 등을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내용이 많아서 농작이나 인간세계의 번영과 관련이 깊다. 중국의 천녀 시조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날개옷 설화와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면, 중국의 칠성시조형(七星始祖型), 중국 소수민족의 토템 신화 전설의 시조형³³⁾이 있다. 이 중에서 날개옷 설화로 널리 알려

31) 祝女(ノロ)는 ‘ヌール’라고도 한다. 오키나와 현(沖繩県), 가고시마 현(鹿兒島県), 아마미 군도(奄美群島)의 류큐 신앙에 기초한 여성 신관이다. 지역의 제사를 총괄하고 우타키(御嶽: 聖地로 제사의 장소)를 관리한다. 유타(ユタ)는 영매 역할을 하는 오키나와의 공수 무녀를 가리킨다.

32) 関敬吾 『日本昔話大成第2:本格説話』 p.232-255

33) 중국의 소수민족의 토템 신화전설은 토템과 관련되어 미개 사회에서, 부족 또는 씨족과 특별한 혈연관계가 있다고 믿어 신성시되는 자연물에 관련된 신화이다. 크게 시조형(始祖型), 수호형(守護型), 외경형(畏敬型)으로 나뉜다. 중국 소수민족의 시조형 토템신화전설에는 식물토템과 동물토템이 있으나, 주로 동물 토템을 시조로 한 경우가 가장 많다. 중국의 소수민족의 동물 시조형 토템신화에는 유전(流転)지역의 차이에 따라 각자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크게 ‘남방 동물사위형(南方動物婿型)’과 ‘북방 동물아내형(北方動物女房型)’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 남방동물 토템신화에서는 동물토템이 남자이고, 북방동물 토템신화에서는 동물 토템이 여자이다.

남방 동물사위형			북방 동물아내형		
민족	篇目	형	민족	篇目	형
요	『반왕(盤王)의 전설』	개	만주	『사람과 개의 혼인』	개
묘	『神田犬父』	개	에벤키	『사람과 곰의 혼인』	곰
여	『附王出身図記』	개	에벤키	『사람과 여우아내의 혼인』	여우
울숙	『호랑이씨족의 来源』	호랑이	한국	『사람과 곰의 혼인』	곰
백	『호랑이씨족의 내력』	호랑이	위구르	『돌궐기원의 전설』	이리
토가	『백호의 아들』	호랑이	카자크	『백조의 전설』	백조
남서	『永宇納西의 선조』	원숭이	몽골	『인류의 기원전설』	양
노	『개구리씨족의 내력』	개구리			
포랑	『알로포』	개구리			

동물 시조 토템신화전설에서는 모계사회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수많은 동물 시조 토템신화는 오랜

져 있고 칠성 시조형(七星始祖型)에 해당하는 『搜神記』 ‘천녀의 자식인 전장의 이야기(天女児・田章)’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 1-1>

옛날에 전곤륜(田崑嶮)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다. 세 명의 미녀들이 연못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고 한 미녀의 천의(天衣)를 훔쳤다. 두 명의 천녀는 흰 두루미(白鶴)가 되어 날아가고 옷을 빼앗긴 천녀는 곤륜의 아내가 되었다. 부부 사이에 전장(田章)이라는 남자아이가 태어난다. 곤륜은 천녀의 옷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출정해서 돌아오지 않는 않는다. 3년 후 천녀는 시어머니를 속여 천의를 꺼내게 하여 그것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아들 전장은 근중선생(董仲先生)에게 천녀가 연못에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 그 연못을 찾아갔다. 세 명의 천녀는 전장을 가엾게 여겨 천의에 태워서 하늘로 데려갔다. 천상에서 천녀의 아버지가 전장에게 도술과 기예를 가르친다. 전장은 할아버지에게 영화부귀를 얻는다는 책 8권을 받고 지상에 돌아와 여러 난제를 푼 후 재상이 되었다. (句道撰『搜神記』1卷)³⁴⁾

위의 『搜神記』의 날개옷 설화는 칠성 시조형에 속하면서도 ‘흰 두루미(白鶴)’의 변신 모티프가 있으므로 백조천녀 유형의 시조신화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흰 두루미’는 꼭 두루미라는 새에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얀 계통의 새를 뜻하므로 백조의 일종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칠성 시조형인 이 이야기에서는 중국의 천녀 시조형 전승의 일반적인 특징, 즉 천녀가 곡물이나 가축 등을 직접적으로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형태가 아니라, 천녀의 아들 전장은 어머니 천녀와 더불어 천상계에 가서, 천녀의 아버지에게서 여러 가지 기술과 학문을 전수 받고 난 뒤에 다시 지상에 내려보내진다. 그리하여 깊은 학식으로 유명해져서 재상까지 맡으면서 번영을 누리게 된다. 이처럼 천녀

세월에 걸쳐 유전되는 과정에서 민간의 故事 구성이 덧붙여져서 동물 토렘과 인류의 단순한 혼인정황이 점차 복잡화하여, 조건을 부가하지 않는 것에서 조건을 부가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이 토렘 동물은 인간이 내놓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인류와 결합하는 것이다. 토렘(원시형태)과 인간의 결합(무조건), 그 자녀가 그 토렘씨족의 선조가 된다. 이 구성은 아주 단순하고 처음의 인간과 토렘은 동일하다는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郎按「中国少数民族のトーテム神話伝説および日本へ流伝」『日本民間伝承の源流』小学館. 1989. pp.287-290
34) 君島久子, 「中国の民間伝承と日本—羽衣・浦島を軸として—」『日本民間伝承の源流』小学館. 1989. pp.310-320
에서 재인용

의 도움으로 인하여 아들이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번영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에서 중국의 천녀 시조형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이카고 작은 강’의 날개옷 설화 <자료1>은 중국의 천녀 시조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농작이나 자손의 번영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원래의 전승에는 농작과 관련되거나 그 자손의 번영 이야기가 덧붙여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마도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설화 내에서 변형이 일어났거나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자료1>에서 이카토미를 도와 천녀의 날개옷을 훔치는 동물 원조자로 ‘흰 개(白犬)’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흰 개의 모티프 또한 유념해야 한다. 여기서 흰 개가 원조자로 등장하는 의미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흰 개의 모티프는 ‘나비즈마(ナビヅマ) 전승’과 영웅 ‘야마토타케루(ヤマトタケル) 전승’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나비즈마 전승’이란 남성의 구혼을 피하여 숨은 여성을 남성이 찾아 혼인에 이르는 이야기이다.³⁵⁾ 『播磨國風土記』에 실려 있는 히레하카(比礼墓) 설화의 오호타라시히코노미코토(大帶日子命)와 이나미노와키이라쓰메(印南別嬪)의 혼인전승이 이에 해당한다.³⁶⁾

오호타라시히코노미코토가 이나미노와키이라쓰메에게 구혼을 하자 이나미노와키이라쓰메는 깜짝 놀라서 나비쓰마노시마(南毘都麻島)에 숨어버리고 말자, 미코토는 와키이라쓰메를 찾아 헤맸다.

이라쓰메가 나비쓰마노시마(南毗都麻嶋)로 건너가서 숨어버렸다. 이에 천황이 가고노마쓰바라(賀古松原)에 도착하여 와키이라쓰메(別嬪)를 찾아다녔다. 그러자 하얀 개(白犬)가 나타나 바다를 향해 길게 울었다. 천황이 “이것은 누구의 개인가” 하고 물으시자 스즈무라노오비토(須受武良首)가 “와키이라쓰메(別嬪)가 기르던 개입니다.”라고 답하였다. (「賀古の郡」 『播磨國風土記』)³⁷⁾

35) 나비즈마 전승은 ‘① 남성이 여성에게 구혼한다. ② 구혼 받은 여성이 이를 피하여 몸을 숨긴다, ③ 남성이 여성을 찾는다. ④ 혼인이 성립한다.’ 의 4 개의 모티프로 구성된다.

36) 오호타라시히코노미코토(大帶日子命)에게 구혼을 받은 이나미노와키이라쓰메(印南別嬪)가 놀라고 무섭기도 하여, 가고(賀古) 이나미(印南)에 위치한 작은 섬에 숨어버렸다. 이라쓰메를 찾아서 그 곳을 방문한 미코토가 “이 작은 섬에 숨은 나비하시즈즈마(隱愛妻)”라고 노래했다고 하여 이섬을 ‘나비즈마’라고 명명하였다고 한다.

37) 即て南毗都麻嶋に遁げ度りき。ここに天皇、乃ち賀古の松原に到りて、覓ぎ訪ひたまひき。ここに、白き犬、海に向きて長く吠えぬ。天皇、問はたまはく「是は誰が犬ぞ」と問はたまひに、須受武良首、対へてまをさく「是は別嬪が養へる犬なり」とまをす。(「賀古の郡」 『播磨國風土記』) pp. 258-265

천황이 가고노마쓰바라에 이르자 바다를 향해 길에 우는 와키이라쓰메가 기르던 흰 개를 발견하여 이라쓰메가 있는 곳을 알게 된 미코토는 바다를 건넜다. 아내가 숨은 섬이라서 ‘나비즈마노시마’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지명 유래담이다. 여기에서 흰 개는 오호타라시히코노미코토가 숨어버린 이나미노와키이라쓰메를 쉽게 찾기 위한 매개체로써 사용된다. 즉 주인공이 여성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종의 암시를 주고 숨어있는 장소에 힌트를 주는 원조자로써 표상된다.

또 야마토타케루가 이세신궁(伊勢神宮)에서 구사나기노쓰루기(草薙劍)를 하사받기 위해 미노(美濃)로 갈 때 길을 잃고 헤매는 야마토타케루 앞에 홀연히 나타나 이세신궁까지 길안내를 해주는 동물이 바로 ‘흰 개(白狗)’이다(『日本書紀』景行天皇 40年條). 이 외 복종의 증거나 구혼을 위한 물건으로써 흰 개를 보내는 이야기도 있다. 38)

원조자로서 개의 활약은 일본의 구전 날개옷 설화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이다. 한국에서는 노루, 사슴 등이 가장 많이 원조자로 등장한다. 사냥꾼에게 쫓기는 노루나 사슴의 목숨을 구해 준 남자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담’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날개옷 설화에서는 남자 주인공을 도와주는 원조자는 보통 사슴, 너구리, 개, 신(神)이 있으며, 특히 원조자로 ‘개’가 활약하는 것은 일본 날개옷 설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구전 설화 중에서 구마모토현(熊本縣) 혼도시(本渡市)에 전승되는 이야기를 하나 살펴보겠다.

한 젊은이가 강가에서 목욕하는 천녀의 날개옷을 훔친다. 날개옷을 잃은 천녀는 남자와 부부가 되었다. 삼 년이 지나자 안심한 남자가 천녀아내에게 날개옷을 보여주자 천녀는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어떤 사람이 짚신 100 켄레를 수세미 주변에 묻으면 하늘에 닿으니 그것을 잡고 하늘에 올라가라고 가르쳐주었으나, 짚신을 999 켄레 밖에 모으지 못하여 하늘에 미처 이르지 않자 개를 위로 던져 그 꼬리를 붙잡고 승천한다.³⁹⁾

이 설화에서는 남자가 하늘에 닿지 못하자 개의 꼬리를 이용하여 하늘에 올라가게 된다. 여기서 개는 남자가 하늘에 승천할 수 있는 조력자로써 표상된다.

특히 규슈(九州), 남서제도(南西諸島)에 분포하는 천녀아내 전승에서는 날개옷

38) 『雄略記』의 ‘若日下部王求婚伝承’이 이에 해당한다.

39) 関敬吾 『日本昔話大成第 2:本格説話』 p.240

을 흠치는 주인공이 개를 기르는 남자이거나 개가 인간을 도와주는 원조자로 활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 일본의 ‘날개옷(羽衣)’ 설화의 모티프에서 후술하겠다. 이처럼 <자료 1>에서 인간계의 남자와 천녀와의 혼인을 도와주는 원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흰 개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은 문헌자료인 記紀 및 구전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원조자로 ‘흰 개’라 하여 흰 색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예로부터 흰 색이 순수하고 신비성이 있는 색으로 많은 고전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설화나 신화적인 요소로써, 흰 개의 요소가 대입되지 않았나 싶다. 흰 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도 흰 새, 즉 백조이다. 일본의 날개옷 설화에서 천녀가 변신하는 백조는 물론이고 더 넓은 의미로 백조에 한정되지 않고 하얀 빛을 가진 새의 종류도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흰색을 기본으로 하는 고대인들의 흰 색에 대한 성스러운 감각이 들어있다.

덧붙여서 이카토미가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것으로 보아 남자의 직업이 수렵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 사냥꾼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구전 날개옷 설화에서 남자의 직업을 조사해보면 어부가 12례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농부로 9례, 노인 7례, 나무꾼 6례, 남자 5례, 사냥꾼이 4례 등의 순서였다.⁴⁰⁾ 남자의 직업이 어부인 경우는 일본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점이며, 게다가 구전 설화에서 남자의 직업이 어부가 차지하는 예가 가장 많다. 이에 대해서 성기열은 “남자의 직업은 사냥꾼이나 나무꾼인 경우가 많으며 일본인 경우에 남자의 직업에 어부가 있는 점이 예외이다⁴¹⁾”라고 언급하고 있다.

배원룡의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를 참고하여 나무꾼과 선녀 설화를 총 10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남자의 직업을 조사해보니 나무꾼 7례, 머슴 1례, 병신 총각 1례, 머슴 2례로 나무꾼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⁴²⁾ 이와 같이 한국

40) 세키 게이코의 『日本昔話大成第2巻:本格説話』을 참고하여 남자 주인공의 직업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부-12례 (漁夫・漁師・若い漁師・貧乏な漁師権之丞・釣り者星野某・魚釣り・川で釣りをしていた男), 농부-9례 (農夫・百姓・畑に出る百姓・屋尊樽瀬戸という百姓・貧乏な百姓・千刈り百姓・土地の者), 노인-7례 (長次郎の名・妻をなくした爺・爺・翁), 나무꾼-6례 (木樵・木挽・木を伐っている男・山仕事に行った男・薪とり男), 젊은이-6례 (若者・正直な若者), 남자-5례 (男・正直な男・勤勉な男・ある男), 사냥꾼-4례 (獵師・狩人・鉄砲撃ち), 개 기르는 사람-2례 (犬飼い), 숯불장수-2례 (炭焼き), 소 기르는 사람-1례 (牛飼い), 상인-1례(商人), 꽃 만드는 사람-1례 (源という花作り), 흰 금 매입자-1례 (古金買い), 독신-1례 (独り者), 질넬비 장수-1례 (焙烙売り)

41) 성기열, 앞의 논문. p.155

42) 배원룡의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에서 유형과 제목은 이와 같다.

에서는 압도적으로 나무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주인공 남자의 직업은 어부와 사냥꾼, 나무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날개옷 설화의 배후가 수렵채취 및 어로(漁撈) 경제 시대임을 방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자료 1>은 구전 날개옷 설화의 전반부와 유사하다. 즉, 천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하다가 남자에게 날개옷을 빼앗기고 결혼하는 점과 천녀가 날개옷을 찾아 입고 다시 하늘로 승천한다는 점이 구전 설화와 <자료1>이 갖고 있는 동일 모티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1>이 일본의 날개옷 설화의 원형에 가깝고 가장 오래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백조처녀 설화의 유형을 지니고 있고 시조 기원담, 지명 유래담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남자의 원조자로 흰 개가 등장하는데 이는 일본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여겨진다.

(2) ‘미호노마쓰바라(三保松原)’ (『駿河国風土記逸文』)

<자료 2>

스루가국(駿河国) 미호노마쓰바라(三保松原). 노인이 전하는 이야기이다. 옛날에 신녀(神女)가 하늘에서 내려와 날개옷(羽衣)을 소나무 가지에 걸어서 말리고 있었다. 어부가 그것을 집어들고 만져보니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가볍고 부드러웠다. 이른바 하늘나라 사람들이 입는다는 로쿠슈옷(六銖衣)인가 직녀

유형	제목	유형	제목
선녀 승천형	나무꾼과 선녀	나무꾼 지상 회귀형 (無시련 수탈유래담)	닭이 높은 데서 우는 유래
나무꾼 승천형	나무꾼과 선녀	나무꾼 지상 회귀형 (有시련 수탈유래담)	나무꾼과 선녀
나무꾼 승천형(실패담)	나무꾼과 선녀	나무꾼과 선녀 동반 하강형(無시련담)	선녀와 머슴
나무꾼 천상 시련 극복형	나무꾼과 선녀	나무꾼과 선녀 동반 하강형(有시련담)	사슴을 구해주고 옥황상 제의 딸을 색시로 얻음
나무꾼 지상 회귀형 (無시련담)	나무꾼과 선녀	나무꾼 시신 승천형	선녀와 나무꾼 (다시 찾은 옥새)
나무꾼 지상 회귀형 (有시련담)	나무꾼과 선녀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집문당, 1993. pp.241-296

가 짠 비단인가 하였다. 신녀는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어부는 옷을 돌려주지 않았다. 신녀는 하늘로 올라가려 해도 옷이 없어 마침내 어부와 부부가 되었다. 필경 이것도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그 후 여자는 날개옷을 찾아 구름을 타고 사라지고 어부 또한 선인(登仙)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고 한다. (「三保松原」『駿河国風土記逸文』)⁴³⁾

그 옛날 스루가국(駿河國) 미호노마쓰바라(三保松原)에 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옷을 소나무 가지에 말리고 있었다. 어부가 그것을 집어보니 가볍고 부드러운 것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날개옷을 잃은 신녀는 어쩔 수 없이 어부와 부부가 되었다. 그 후, 어느 날 여자는 옷을 찾아 구름을 타고 사라졌다. 어부도 선인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고 한다.

여기에서 남자는 ‘이카고 작은 강’ 날개옷 설화 <자료1>과는 달리 사냥꾼이 아니고 어부이다. 앞 장에서 전술한 것처럼 일본의 구전 설화에서 남자의 직업 중에서 어부가 가장 많이 차지하며, 또 어부라는 직업은 일본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보면 일본의 지리 특성상 섬나라이고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남자의 직업이 어부로 설정되는 예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자료 2>를 날개옷 설화의 기본적 유형과 비교하면 전반부에서 아래와 같은 세 모티프만 동일하다.

- a. 천녀가 날개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
- b. 인간 남자가 그 중 한 명의 날개옷을 훔치고 천녀를 아내로 맞는다.
- d. 천녀는 잃었던 날개옷을 찾아내어 입고 하늘로 올라간다.

다음과 같은 모티프는 결여되어 있다.

- c. 결혼 후, 몇 명의 아이를 낳는다.

43) 老伝へて言わく、昔、神女あり。天より降り来て、羽衣を松の枝に曝しき。漁人、拾ひ得て見るに、其の軽く軟きこと言ふべからず。所謂六銖の衣か、織女の機中の物か。神女乞へども、漁人与へず。神女、天に上らむと欲へども羽衣なし。是に遂に漁人と夫婦と為りぬ。蓋し、已むを得ざればなり。其の後、一旦、女羽衣を取り、雲に乗りて去りぬ。其の漁人も亦登仙しけりと云ふ。(「三保松原」『駿河国風土記逸文』) p.447

e. 남자도 아내의 뒤를 따라 하늘로 가거나 지상에 남겨진다.

물론 목욕담 모티프(a)는 직접적으로 없고 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날개옷을 소나무 가지에 말린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물가라는 장소와 소나무 가지에 날개옷을 걸어서 말린다는 표현에서 날개옷을 벗고 목욕하는 모티프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날개옷(羽衣)’ 표기는 있으나 백조가 사람으로 변하는 ‘백조처녀’ 모티프는 보이지 않는다. 또 혼인 모티프(b)는 있으나 아이의 탄생 모티프(c)는 없다. 남자가 천녀아내를 쫓아 하늘로 가는 모티프(e)에서는 남자가 천녀아내를 쫓아간 것인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간 것인지 여기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등선(登仙)하였다고 표현되어 있다. ‘登仙’⁴⁴⁾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는 말로, ‘登仙’이란 용어에서도 신선적인 요소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자료 2>의 날개옷 설화의 배경에는 신선사상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는 『日本上代史研究』에서 記紀의 본문연구를 통하여 상대 일본은 백제를 경유한 육조(六朝)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3세기 말에서 6세기에 이르는 중국의 육조시대는 유교와 불교를 뛰어 넘을 정도로 신선사상이⁴⁵⁾ 유행한 시대였다. 따라서 상대일본 문화 속의 신선사상의 영향 역시 매우 크다고 논했다.⁴⁶⁾ 이렇게 볼 때 도교의 영향으로 유행하던 중국의 신선사상

44) 남자가 신선이 되어 올라간다는 등선(登仙)은 신선사상의 선향(仙鄉)으로 일종의 유토피아적 세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고대인의 의식이 본질적인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선사상의 선향(仙鄉)과 남방계(南方系)의 바다 안의 세계 등의 수용에 따라 이계(異界)는 그 유토피아적 낙원의 관점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 이유가 애매하여 천녀가 사는 이계도 유토피아화 되었기 때문에 고대인은 이계의 동경이 점점 강해진다. 그래서 단지 우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강한 동경과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고대인이 스스로 이계를 향하는 결과로 세계를 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三浦佐之「寄」来る神の婚—その神話的性格と展開」『成城文芸』東京成城大学文芸学部. 1975. p.13

45) 신선사상이란 중국에서 발생한 오래된 민간신앙의 하나이다. 중국 기원전 3-4세기 말의 동란기, 즉 전국(戰國)시대에는 사회상태가 불안정하여 사람들은 도탄에 빠져 고통에 허덕였으나 제후들의 부귀는 오히려 극에 달했다. 그러나 그들은 부귀를 탐내는 만큼 더욱 더 부귀의 변영을 바라는 한편, 장생(長生)을 체득하여 항상 변영생활의 영속(永続)함을 원했다. 이 장생의 기술을 체득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신선사상이었다. 신선사상은 오래전부터 발생된 것이라 추측되지만 역사상에서 모습을 나타낸 것은 이 전국(戰國)시대였다. 신선사상에서는 도사가 권하는 법에 따라 건강이 보존되면 불로장생(不老長生)이 가능하다. 이 장생을 체득하는 것이 神仙(真人·神人)으로 그들 신선은 멀리 동쪽 바다 위에 있는 봉래(蓬萊), 만장(萬丈), 영주(瀛州)라는 삼신산(三神山)에 살고 지금도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진다. 신선의 거주지는 처음에는 삼신산(三神山) 뿐이었지만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점차 확장되어 기원전후(紀元前後)의 한 나라(漢代)까지는 모두 심산유곡(深山幽谷)에 산다고 믿어져 그 성격도 불로장생만이 아닌 모든 능력을 갖춘 전지전능적인 성격이 되었다.

下出積与『神仙思想』吉川弘文館. 1968. pp.1-3

46) 下出積与, 앞의 글. p.18에서 재인용.

이 일본에 유입·수용되면서 날개옷 설화가 변용된 것이 <자료 2>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신선사상에 의해 변용된 탓에 남자의 천상방문과 난제형 등의 후일담적 요소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료 2>의 날개옷(羽衣)은 <자료 1>처럼 비행(飛行) 가능한 날개의 작용을 하는 옷을 가리킨다. 한편, 날개옷을 ‘로쿠슈의 옷(六銖衣)’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로쿠슈의 옷’이란 불교에서 천상계 도리천(兜梨天)에서 입는 옷으로 아주 가벼운 옷을 가리킨다. 도리천은 불교용어로 제석천(帝釋天)이 47) 산다는 천계를 가리킨다.

그리고 <자료 1>과 후술하는 <자료 3>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녀의 수가 8명이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반면에, <자료 2>에서는 천녀의 수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단수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천녀 한 명으로 생각된다.

<자료 2>에서는 천녀가 ‘신녀(神女)’로 표기되어 있으며, 또 천녀가 날개옷을 걸어 말리는 ‘소나무’가 있는 장소를 ‘미호노마쓰바라(三保松原)’⁴⁸⁾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이 특이하다. 미호노마쓰바라는 현재 시즈오카현(静岡県) 미호반도(三保半島)에 있는 유명한 경승지이다. 구체적으로 장소가 언급된 이유는 미호노마쓰바라가 일본의 백사청송(白沙青松)100選에도 지정되고, 日本新三景・日本三大松原의 하나로 꼽힐 만큼 고대로부터 유명한 곳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신녀’라는 표현도 하늘에서 내려온 여자의 의미인 천녀로 단순히 쓰기 보다는 신선적인 요소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구전 날개옷 설화에서도 천녀가 날개옷을 걸어두는 장소로 소나무가지가 언급되지만, ‘미호노마쓰바라(三保松原)’라고 구체적인 장소로는 제시되지 않고 주로, 소나무가지나 노송으로 나온다.⁴⁹⁾

47) 제석천은 원래는 인도의 무신 인도라이다. 인도라는 점차 불교와 결합하여 불법의 수호신으로써 취급되고 밀교에서는 호세팔방천(護世八方天)의 하나로써 동방의 수호신이 되었다.

伊東一郎 ほか『世界の神話伝説・総解説』自由国民社, 1982. pp.73-74

48) 미호노마쓰바라(三保松原)는 시즈오카현(静岡県) 시즈미시(清水市)에 위치. 현 중앙부와 시즈미 항(清水港) 남동쪽의 해안으로 1922년 명승지로 지정되었다. 시즈미 항을 둘러싸듯이 북동쪽에 약 4km 돌출한 미호반도(三保半島)의 스루가(駿河) 해안가의 송원을 가리킨다. 후지산의 조망이 뛰어난 풍광명한 땅이다. 미호신사(御穂神社)의 앞 해변이 그 중심으로, 요곡과 날개옷 설화로 알려진 ‘날개옷의 소나무(羽衣の松)’가 있다. 浮田典良、中村和郎、高橋伸夫, 앞의 글, p.1110

49) 세키게이코의 『日本昔話大成 2』을 참고로 날개옷을 거는 장소가 소나무라고 명시된 곳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았다.

요곡(謠曲) ‘날개옷(羽衣)’은 미호노마쓰바라의 날개옷 설화와 동일한 소재로 만들어졌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2-1>

한적한 어느 봄날 하쿠류(白龍)라는 이름의 어부가 낚시를 하러 갔다. 바닷가 미호노마쓰바라(三保松原)에 있는 소나무에 아름다운 옷이 걸려있어서 하쿠류는 이것을 집어 가져가려고 했다. 그러자 그곳에 천인이 나타나서 “그것은 저의 날개옷(羽衣)이니 돌려주세요.” 라고 말했다. 하쿠류가 이를 거절하자 천녀는 “그것이 없으면 하늘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한탄하며 슬프게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 애처로운 모습에 마음이 흔들린 하쿠류는 천녀에게 춤과 음악을 보여달라는 조건을 내세워 날개옷을 돌려주었다. 그리하여 천녀는 기뻐하며 월궁항아(月宮姮娥) 생활의 즐거움을 이야기 하고 “제가 사는 천계의 운치와 아름다움은 이 미호노마쓰바라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이곳의 풍광을 칭송하면서 춤을 추었는데 그것이 전해져 아즈마아소비(東遊)의 스루가 춤(駿河舞)⁵⁰⁾이 되었다. 천녀는 잠시 동안 소매를 흔들리며 춤추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새 아름다운 천녀는 후지산보다도 높이 희미한 하늘 저편으로 춤추면서 사라져 갔다.

어느 봄날 하쿠류(白龍)라는 이름의 어부가 낚시를 하러 갔다가 소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날개옷을 보고 집어가려했으나 천녀가 자신의 옷이라 말하면서 돌려달라고 청하였다. 하쿠류는 천녀에게 춤과 노래를 보여주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날개옷을 돌려준다. 천녀는 날개옷을 돌려받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미호노마쓰바라의 아름다움을 칭송한 후 하늘로 올라갔다는 내용이다.

<자료 2-1>의 공간 배경은 <자료 2>와 마찬가지로 미호노마쓰바라이다. 양 문헌 설화의 자료는 서로 비슷한 곳이 많지만 차이점 또한 조금씩 있다. 우선 <자료 2>에서는 날개옷을 훔친 남성은 천녀와 부부가 된 이후에도 날개옷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세월이 지난 뒤 천녀가 날개옷을 찾아서 승천한다. 그러나 <자료 2-1>에서는 천녀의 가련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남자가 천녀에게

松の枝(沖繩県・鹿児島県奄美大島・鹿児島県沖永良部島・埼玉県川越市), 松/松の木(沖繩県・広島県佐伯郡・岡山県後月郡,静岡県安部郡,福島県相馬郡), 松藤の枝(熊本県阿蘇郡), 老松(愛知県宝飯郡)

50) 아즈마 아소비(東遊)는 고대 무곡(舞曲)으로 아즈마국(東国)의 풍속 노래에 맞춰 춤추는 데서 시작되었으며, 스루가 춤(駿河舞)·모토메고(求子)·오오히례(大比礼)등이 있다. 스루가 춤(駿河舞)은 스루가 우도 해안가(駿河有度浜)에 천인이 하늘에서 내려와 춤추는 곡을 그곳 지역의 사람들이 흉내 내며 전해져 왔다는 전설이 있다.

춤을 보여주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날개옷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다시 말하자면 <자료 2-1>에서의 천녀는 날개옷을 빼앗겼지만 얼마 안 있어 날개옷을 쉬운 조건으로 건네받을 수 있었다. 둘째, <자료 2>에서는 미호노마쓰바라가 천녀가 날개옷을 걸어놓은 곳, 즉 날개옷의 발견 장소로만 언급되었지만, <자료 2-1>에서는 천녀가 천상계와 비교하여 조금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경치라고 극찬할 정도로 풍광명미한 곳임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준다. 세 번째, <자료 2>는 날개옷 설화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료 2-1>에서는 날개옷 설화임과 동시에 아즈마야소비(東遊) 스루가 춤(駿河舞)의 기원설화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2>에서는 어부인 남자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지만, <자료 2-1>에서는 남자가 신선이 되는 내용은 없다. 아무래도 극적인 요소가 삽입되다 보니 천녀가 미호노마쓰바라의 풍광을 찬미하여 혼자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서 끝을 맺는다.

일본에 있어 회화나 시가, 모노가타리(物語) 등 예술 일반에 있어서 상징처럼 등장하는 것이 소나무였다. 유아사 히로시(湯淺浩史)는 “일본의 문화는 나무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안에서 산악지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자연은 나무로 뒤덮여져 있다. 바닷가에는 흑송림, 고산의 한계선에는 눈잣나무가 있다. 말하자면 일본의 나무숲은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고 하여 소나무로 뒤덮인 일본의 풍토를 대변하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⁵¹⁾

그리고 일본에는 없는 한국만의 고유한 십장생(十長生)에는 소나무가 있다. 소나무는 장수를 뜻하고 신비성이 곁들여져 있어서, 고전 작품이나 그림에서 신선이 언급될 때에 항상 신선과 소나무와 같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십장생 자체가 중국의 신선사상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십장생도(十長生圖)’ 라는 그림에서는 중국의 봉래산을 연상시키는 선경이 묘사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십장생이라는 용어가 없지만 소나무와 학, 소나무·대나무·매화 등 부분적인 조합만 있다.

따라서 천녀가 걸어놓는 나뭇가지가 소나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나무가 일본의 풍토를 대변하기도 하고 신선적인 요소가 깃들여 있는 <자료 2>의 신선적인 느낌을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삽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 2>는 <자료 1>에서 보였던 천녀가 백조나 흰 새로 변하는 백조의 모티

51) 임성철 『일본고전시가문학에 나타난 자연』 보고서. 2002. pp.103-104에서 재인용

프나 아이의 탄생 모티프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천녀가 단수로 표기되고 천녀가 아닌 신녀(神女)로 표기되었다. 결말에 남자가 등선하였다는 점에서는 신선상이 수용되면서 변용을 거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3) ‘나구 신사(奈具社)’ (『丹後國風土記逸文』)

<자료 3>

단고국(丹後國) 나구신사(奈具社) 다니하군(丹波郡) 군청 서북쪽 끝자락에 히지리(比治里)가 있다. 당시 마을 히지산 정상에 마나이(真奈井)라는 물가가 있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습지가 되었다. 이 물가에 천녀가 8명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때 와나사(和奈佐)라는 노부부가 몰래 한 천녀의 옷을 숨겼다. 옷이 있는 천녀들은 모두 하늘로 날아 올라갔으나 옷이 없는 천녀만이 홀로 남아 몸을 물속에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이에 할아버지가 천녀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으니 부디 우리들의 자식이 되어 주세요.” 라고 했다. 천녀가 대답하기를 “나만 홀로 이렇게 인간 세계에 남았는데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저의 옷을 돌려주세요.” 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어째서 저를 속이려 합니까?”라고 하자, 천녀가 답하기를 “본디 천녀의 마음은 믿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의 마음을 의심해 옷을 돌려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인간 세계는 원래 의심이 많고 신심이 없지요. 그래서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을 뿐입니다.”고 날개옷을 돌려주고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 함께 10여년을 함께 살았다. 천녀는 술을 아주 잘 빚었다. 천녀가 빚은 술은 한 잔만 마셔도 어떤 병이라도 다 나았다. 그 한 잔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재화를 수레에 가득 싣고 찾아왔다. 그래서 노부부의 집은 풍족해지고 토지도 기를졌다. 이런 연유로 히지카타리(土形里)라고 불렀으나 언제부턴가 히지리(比治里)라고 하게 되었다. 그 후 노부부는 천녀에게 “그대는 내 자식이 아니다. 잠시 같이 살고 있을 뿐이니 어서 빨리 이 집을 나가라.” 라고 천녀를 내쫓았다. 천녀는 하늘을 쳐다보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였다. 그리고 노부부에게 말하기를 “이 집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당신들이 원해서 왔거늘 어찌하여 그리 나쁜 마음을 일으켜서 당장 나가라고 험한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자 노부부는 더욱더 화를 내며 빨리 나가라고 했다. 집 밖으로 쫓겨난 천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을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인간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갈 수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 어떻게 살아갈 방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찌면 좋을까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멀리 하늘 바라보니 안개가 자욱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 헤맸다. 어찌할 방법을 모르기에.” 결국 천녀는 그곳을 떠나 아라시오촌(荒塩村)에 이르러 마을 사람들에게 “노부모님의 마음을 떠올리면 내 마음은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것 같군요.”라고 했다. 그래서 아라시오촌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 다니와리(丹波里)의 나키키촌(哭木村)에 이르러 느티나무에 기대어 울었다. 그래서 나키키촌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 다카노군(竹野郡) 후나키리(船木里)의 나구촌(奈具村)에 이르러 마을 사람들에게 “여기에 와서 내 마음이 평화롭게 되었다. 옛날에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나구시’라고 한다”고 말하면서 이 마을에 머물러 살았다. 이 분이 바로 다카노군의 나구신사에 좌정하신도요우카노메노미코토(豊宇賀能売命)이다.(「奈具社」『丹後国風土記逸文』)⁵²⁾

다니하군(丹波郡) 서북쪽 끝에 위치한 히지리(比治里) 산 정상에 있는 마나이(眞奈井) 물가에 하늘에서 여덟 천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때 와나사(和奈佐)라는 노부부가 몰래 한 천녀의 옷을 숨기고 자식이 되어달라고 청하였다. 천녀는 옷을 돌려주라고 간청하였으나 끝내 돌려주지 않자 노부부의 자식이 되어 함께 십여 년을 같이 살았다. 천녀는 술을 매우 잘 빚어서 한 잔만 마셔도 어떤 병이라도 나왔다. 그 한 잔을 손에 넣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재화를 차에 싣고 올 정도였기 때문에 노부부는 부자가 되고 전답도 기름지고 풍부해졌다. 그 후 오만해진 노부부는 천녀에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잠시 같이 살고 있었을

52) 丹後の国丹波の郡。郡家の西北の隅の方に比治の里あり。此の里の比治山の頂に井あり。其の名を真奈井と云ふ。今は既に沼と成れり。此の井に天女八人降り来て水浴みき。時に老夫婦あり。其の名を和奈佐の老夫・和奈佐の老婦と曰ふ。此の老等、この井に至りて、窃かに天女一人の衣裳を取り藏しき。即て衣裳ある者は皆天に飛び上りき。但、衣裳なき女娘一人留まりて、即ち身は水に隠して、独懐愧ち居りき。爰に、老夫、天女に謂ひけらく、「吾は児なし。請ふらくは、天女娘、汝、児と為りませ」といひき。天女、答へけらく、「妾独人間に留まりつ。何ぞ敢へて従はざらむ。請ふらくは衣裳を許したまへ」といひき。老夫、「天女娘、何ぞ欺かむと存ふや」と曰へば、天女の云ひけらく、「凡て天人の志は、信を以ちて本と為す。何ぞ疑心多くして、衣裳を許さざる」といひき。老夫答へけらく、「疑多く信なきは率士の常なり。故、此の心を以ちて、許さじと為ひしのみ」といひて、遂に許して即ち相副へて宅に往き、即ち相住むこと十余歳なりき。爰に、天女、善く酒を醸み為りき。一坏飲めば、吉く万の病除ゆ。其の一坏の直の財は車に積みて送りき。時に、其の家豊かに、土形富めりき。故、土の形里と云ひき。此を中間より今時に至りて、便ち比治の里と云ふ。後、老夫婦等、天女に謂ひけらく、「汝は吾が児にあらず。暫く借に住めるのみ。早く出で去きね」といひき。ここに、天女、天を仰ぎて哭き働、地に俯して哀吟しみ、即て老夫等に謂ひけらく、「妾は私か意ら来つるにあらず。是は老夫等が願へるなり。何ぞ厭悪ふ心を発して、忽に出し去つる痛きことを存ふや」といひき。老婦、増発瞋りて去かむことを願む。天女、涙を流して、微しく門の外に退き、郷人に請ひけらく、「久しく人間に沈みて天に還ることを得ず。復、親故もなく、居らむ由を知らず。吾、何にせむ、何にせむ」といひて、涙を拭ひて嗟歎き、天を仰ぎて哥ひく、天の原ふり放け見れば 霞立ち家路まどびて行方知らずも。遂に退き去きて荒塩の村に至り、即ち村人等に謂ひけらく、「老父老婦の意を思へば、我が心、荒塩に異なることなし」といへり。仍りて比治の里の荒塩の村と云ふ。亦、丹波の里の哭木の村に至り、楓の木に拠りて哭き。故、哭木の村と云ふ。復、竹野の郡船木の里の奈具の村に至り、即ち村人等に謂ひけらく、「此処にして、我が心なくして成りぬ。古事に平善きをば奈具志と云ふ。」といひて、乃ち此の村に留まり居りき。斯は、謂はゆる竹野の郡の奈具の社に坐す豊宇賀能売命なり。(「奈具社」『丹後国風土記逸文』) pp.466-469

“빨리 나가버려라!” 라고 하며 천녀를 내쫓았다. 천녀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 아라시오촌(荒鹽村)에 이르러 마을 사람들에게, “노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거친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것 같다.”라고 했다. 그래서 아라시오촌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또 다니하리(丹波里) 나키키촌(哭木村)에 이르러 느티나무에 기대어 울어서 나키키촌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 후나키리(船木里) 나구촌(奈具村)에 이르러 “여기에 와서 나의 마음은 평화롭게 되었다.” 며 이 마을에 좌정하였는데 바로 이 신이 다카노군의 나구 신사에 있는 도요우카노메노미코토(豊宇賀能賣命)이다.

위의 ‘나구 신사’의 날개옷 전승, 즉 <자료3>은 변형된 날개옷 설화에 속한다. 이는 일반적인 날개옷 설화에, 천녀가 나구 신사의 제신(祭神)이 된 연유를 말하는 신사 연기담(神社緣起譚)과 아라시오촌, 나키촌 등의 지명의 유래를 설명하는 지명 유래담이 복잡하게 결합된 서술 형식을 띄고 있다. 그리고 천녀가 술을 빚어서 노부부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샷갯을 쓴 지장보살(笠地藏)⁵³⁾ 이야기나 듣는 귀(聽耳)⁵⁴⁾ 이야기와 같은 장자 치부담(長子致富譚) 유형에 속하며, 천녀의 추방담은 용궁동자형(龍宮童子型)⁵⁵⁾과 비슷하지만 천녀를 추방한 노부부의 몰락이 언급되지 않는 점이 다르다.

날개옷 설화의 변형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날개옷 설화의 유형을 크게 벗어나기 때문이다. 전술한 날개옷 설화 유형 중에서 천녀가 날개옷을 벗고 목욕하는 것(a), 날개옷을 인간에게 빼앗기는 것(b)은 동일한 패턴을 밟지만 그 후의 전개에서 일탈과 변형의 형식이 보인다. 천녀의 날개옷을 훔치는 주체는 지상의 남자가 아니라 노부부이며, 따라서 중요한 혼인 모티프가 결여되어 있다. 그 대신 결

53) 가난한 노부부가 있었다. 새해에 정월을 앞두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음식을 살 수 없어서 할아버지가 마을에 샷갯을 팔러 나갔다. 그러나 샷갯은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여섯 지장보살님이 눈 속에서 있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는 샷갯을 모두 지장보살님에게 씌워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 밤중에 노부부가 자고 있는데 밖에서 몇몇 사람이 무거운 것을 가져와서 질질 끄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나서 나가보니 문 앞에 새해 축하 쌀과 돈이 가득히 쌓여 있었다.

野村純一 『昔話・伝説必携』 学灯, 1992. p.18

54) 어느 남자가 신의 예언을 듣고 동물(뱀·물고기·거북이·여우·고양이·쥐·계)을 도와주어 새(동물·나무)의 말을 알아듣게 되는 보물(두건·옥·샷갯·지팡이·상자 등)을 얻는다. 남자는 그것을 귀에 대어 새의 소리를 듣고 황금이 있는 장소를 발견한다. 그리고 부잣집 딸의 병의 원인을 알아내어 치료하여 사위가 되기도 한다. 또는 임금님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을 알게 되어 임금님을 구해 돈을 받아 행복하게 산다. 일종의 동물보은담(動物報恩譚)에 속하기도 한다.

野村純一, 앞의 글. p.22

55) 부를 가져준 수계(水界)의 동자를 추방하자 그 집은 몰락하는 이야기의 유형을 말한다.

혼하지 않은 천녀는 날개옷을 훔친 노부부의 아이가 된다. 이는 세키 게이코의 날개옷 설화 유형 중에서 양녀형에 해당된다. 그리고 <자료 1>과 <자료 2>에서는 날개옷을 훔친 남자가 날개옷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천녀가 스스로 날개옷을 찾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노부부에게서 날개옷을 돌려받지만 속세에 더럽혀진 날개옷은 이미 신성함을 잃어서 비행 기능을 상실하여 결국 천녀는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게 된다. <자료 1>에서는 ‘하늘의 날개옷(天の羽衣)’과 <자료 2>에서는 ‘날개옷(羽衣)’ 이라고 하여 ‘날개옷(羽衣)’이 직접 언급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단순히 ‘옷(衣裳)’이라고만 되어있다. 그러나 ‘옷’은 천녀가 입는 옷이며, 또 하늘과 지상을 왕복할 때 갈아입는 옷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날개옷으로 봐도 무방하다.

노부부에 의한 천녀 추방담에는 오오게쓰히메나 우케모치노카미(保食神)와 같은 곡물기원신화가⁵⁶⁾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여신의 주검에서 인류에게 필요한 곡물이 발생하고 인간계에 풍요를 가져다주었다. 두 신이 죽어서 곡신으로 재탄생된다는 것은 인간세상에서 추방되어 죽음으로써 새로운 신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생(生)에서 추방된 두 신이 죽음으로 인해 인간들에게 곡물의 풍요를 가져다주듯이, 천녀가 추방되어 신으로 진좌함으로써 인간들에게 안정성과 믿음의 풍요를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노부부에게 쫓겨난 천녀는 이곳저곳을 방랑한 끝에 나구 신사의 신으로 좌정하여 ‘도요우카노메노미코토(豊宇賀能賣命)’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신의 편력담과 진좌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농경신의 순행으로도 볼 수 있다.⁵⁷⁾

여기서 천녀의 이름을 ‘도요우카노메노미코토’ 라고 밝히고 있다. 후대적 요소를 많이 혼합하기 쉬운 신화나 설화는 전승 속의 신명이나 인명의 해독을 통하여 본래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신화나 설화의 바른 이해에 도달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기서는 신명(神名) ‘도요우카노메노미코토(豊宇賀能賣命)’의 의미

56) 오오게쓰히메는 스사노오(須佐能男)가 먹을 것을 요구하자 오오게쓰히메는 그녀의 머리에서는 누에, 두 눈에서 벼, 두 귀에서는 조, 코에서는 팥, 음부에서는 보리, 엉덩이에서는 콩의 먹을 것을 꺼낸다. 이에 스사노오는 자신을 능멸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오오게쓰히메를 죽인다. 또 우케모치노카미는 아마테라스(天照大神)의 명령으로 자신을 방문한 쓰키요미(月夜見)에게 쌀과 고기와 짐승을 토하여 대접했다. 그러나 쓰키요미는 이를 불결하게 생각하고 우케모치노카미를 죽여버렸다. 우케모치노카미의 주검의 머리에서 소와 말, 이마에서 조, 눈썹에서 누에, 눈에서 피, 배에서 벼, 음부에서 보리·콩·팥이 나왔다. 즉 이 두 여신의 주검에서 인간에게 유익한 곡물이 발생하는데 곡물기원신화라고 한다.

57) 大林太郎吉田教彦『日本神話事典』大和書房. 1997. pp.234-235

를 찾아서 신명 속에 담겨진 실체를 찾아보기로 한다.

‘도요우카노메노미코토(豊宇賀能賣命)’의 ‘우카(宇賀)’는 다음과 같이 記紀에 보인다.

宇迦之御魂神(『古事記』)

倉稻魂 : 宇介能美柁磨 (『日本書紀』)

즉 記紀에 보이는 곡물의 여신 ‘우카노미타마(稻魂, 倉稻魂)’의 ‘우카’와 동일하여 음식물 특히 곡령(穀靈)을 의미하는 말이다.⁵⁸⁾ 따라서 도요우카노메노미코토는 곡령의 여신, 즉 곡물의 풍요신이다. 도요우카노메노미코토는 일찍부터 이세신궁 외궁(外宮)의 제신(祭神) ‘도요우케노오호카미(豊受大神)’와 동일한 신으로 여겨졌다. 이세신궁은 아마테라스(天照)를 모시는 내궁과 도요우케노오호카미를 모시는 외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궁은 유랴쿠(雄略)天皇 때 아마테라스의 식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단바국(丹波国)에서 권청해 온 신 도요우케노오호카미를 모신다. 도요우케노오호카미는 곡물의 신, 즉 곡령의 성격을 갖는 여신임은 분명하다. 나구 신사의 제신인 도요우카노메노미코토 역시 곡령이므로, 따라서 ‘나구 신사’의 날개옷 설화는 곡령, 특히 벼의 여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녀임을 말하는 이야기라 볼 수 있다.

이 천녀가 빛은 술이 특별한 것도 벼의 여신인 천녀의 신성(神性)에서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 신은 미쿠리야가미(御厨神)의 범주에 포함하여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즉 이것은 종교적인 신으로 민중의 실제 신앙생활에서 커다란 세력을 점유하고 있던 미쿠리야가미가 記紀의 세계에 표출된 때에 나타난 모습이다. 도요우카노메노미코토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천녀가 곡령 도요우카노메노미코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민중의 실제 신앙에 기초를 둔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⁵⁹⁾ 나키키(哭木)는 도요우카노메노미코토를 제사하는 나키키 신사(名木神社)⁶⁰⁾이다.

58) 上代語編纂委員會 『時代別国語大辞典(上代編)』三省堂, 1983, pp.109-110

59) 下出積与, 앞의 글, pp.222-228

60) 나키신사(名木神社)는 京都府 京丹後市 峰山町에 위치. 신사 이름은 날개옷의 천녀가 나무에 기대 울었다고 하는데서 유래하여 나키키신사(哭木神社)라고 기록되었지만, ‘나키(哭)’의 글자를 꺼려서 ‘나기(名木)로 하였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처럼 <자료 3>은 백조처녀의 모티프가 보이지 않고, 신사 연기담, 지명 유래담, 장자 치부담, 용궁동자형, 농경신의 순행담 등의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변형담이다. 특히 나구 신사에 좌정한 천녀의 신명(神名)이 ‘도요우카노메노미코토’ 라고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는 점은 주의할 만하다. 앞에서 논한 것처럼 곡령, 곡신이라는 신격(神格)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천녀가 술을 잘 빚는다는 점 역시 천녀가 곡신이었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준다. 천녀는 날개옷이 있지만 돌아가지 않았고 노부부를 풍족하게 해주고 민중에게 풍요를 가져다주었다. 이는 인간에게 곡식, 음식,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녀라고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노부부에 의해 쫓겨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쫓겨난 것이 아니고 민중에게 마음의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주기 위해 마을에 좌정하여, 마음에 든 곳에 신이 진좌했다는 이야기로 발전된다.

3. 일본의 구전 ‘날개옷(羽衣)’ 설화

제2장에서 『風土記』에 수록된 3편의 날개옷 설화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여기서는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구전(口傳) 날개옷 설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도 한다. 날개옷 설화의 구전자료는 앞서 언급한 세키 게이고의 『日本昔話大成 2』을 참고로 하여 고찰하였다.

일본의 구전의 날개옷 설화는 현재 약 130편 채록되어 있는데⁶¹⁾ 문헌 설화와는 달리, 이야기의 전반부보다 후반부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하늘에서 천녀가 내려와 물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남자에게 날개옷을 빼앗겨 그의 아내가 된다. 몇 년 후 자식을 낳고 숨겨놓은 날개옷을 찾아 하늘로 올라간다는 전반부는 『風土記』의 날개옷 설화와 비슷하다. 그러나 천녀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 펼쳐지는 후반부의 이야기는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그 결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세키 게이고는 날개옷 설화를 시조 탄생형·우지가미형·이별

61) 세키게이고의 『日本昔話大成 2』을 중심으로 채록지역을 조사해보니, 다음과 같다.

県/府	郡/市	県/府	郡/市	県/府	郡/市
沖縄県	某地	大分県	宇佐郡	香川県	丸亀市
	島尻郡		阿蘇郡		仲多度郡
鹿児島県	薩摩郡 下甌島	熊本県	飽託郡	徳島県	三豊郡 志々島
	大島郡 喜界島		天草郡		三好郡
	奄美大島		本渡市	美馬郡	
	冲永良部島	長崎県	南高来郡	山口県	大島郡
	与論島	高知県	幡多郡	京都府	綾部市
	鹿児島市		高岡郡	三重県	志摩郡
広島県	比婆郡	岡山県	後月郡	愛知県	宝飯郡
	双三郡	島根県	邑智郡		新城市
	佐伯郡		八束郡	静岡県	安部郡
	豊田郡	島取県	東伯郡	新潟県	北魚沼郡
岐阜県	吉城郡		西伯郡		長岡市
長野県	上伊那郡	富山県	西砺波郡		埼玉県
	小県郡	山形県	米沢市	川越市	
福島県	平市		最上郡	岩手県	所沢市
	南会津郡		飽海郡		紫波郡
	相馬郡	八戸市	北上市		
秋田県	平鹿郡	青森県	津軽郡	遠野市	
宮城県	本吉郡				

형·재회형·행복한 혼인형·양녀형·난제 구혼형의 일곱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고, 미야오카는 이별형·천상방문형·칠석결합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또 기미시마는 아래와 같이 칠석형, 난제형, 칠석 결합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지리적 분포 경향을 밝히고 있다.

일본열도는 북동에서 남서에 걸쳐 좁고 길게 뻗어있다. 날개옷 설화는 일본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크게 나누면 동일본과 서일본 그리고 남서제도(南西諸島)로 구분할 수 있다. 동일본은 ‘칠석형’, 서일본에서 남서제도에 걸쳐 ‘난제형’과 ‘칠석결합형’을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것은 ‘난제형’으로 농경 특히 밭농사 및 화전에 관한 것이 많다.⁶²⁾

본 논문은 기미시마의 유형 분류가 구전 날개옷 설화를 설명하는데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구전의 날개옷 설화를 고찰하였다.

일본의 구전 날개옷 설화는 크게 칠석형, 난제형, 칠석결합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칠석형의 내용은 이렇다.

- a. 아내를 찾아 하늘로 올라간 남자에게 (혹은 오이밭을 지키고 있는 남자에게) 천녀가 오이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거나 오이를 절대로 세로로 자르지 말라고 일러준다.
- b. 남자는 그 말을 잊고 오이를 먹거나 오이를 세로로 자른다.
- c. 오이에서 물이 터져 나와 대홍수가 일어나 은하수가 생겨나고 천녀와 남자는 헤어지게 되었다.
- d. 천녀가 “7일, 7일에 만나자”고 한 것을 남자가 ‘7월 7일’ 이라고 잘못 들어 1년에 한 번 밖에 만날 수 없다고 한다.

칠석형에서는 남자가 승천 이후에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앞부분은 생략되고 처음부터 천상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한다. 일 년에 한 번 밖에 만날 수 없다는 7월 7일 ‘칠석’ 모티프에 중점을 두고 나눈 유형으로, 주로 은하수의 유래담과 연결되기도 한다. 그 중에서 가가와현(香川県) 나카타도군(仲多度郡)의 날

62) 君島久子 「羽衣説話の生業形態に関する一試論」 『岐阜聖徳学園大学紀要』 37号. 1999년 2월. p.289

개옷 전승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사쿠사 관음사(淺草觀音寺)의 복도에 17명의 천녀가 내려와 춤추고 있었는데 나무꾼이 날개옷 하나를 훔쳐 천녀를 아내로 맞는다. 천녀의 부재중에 나무꾼이 아이에게 날개옷을 보여주면서 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천녀가 기모노를 사 갖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이는 더 예쁜 옷이 있다면서 날개옷을 갖고 나온다. 천녀는 날개옷을 입고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오르면서 노래를 불러 하늘에 올라오라는 쪽지를 남겼다. 나무꾼이 노래를 부르자 보랏빛 구름이 내려와서 그것에 타 하늘에 가보니 천녀와 아이가 길쌈을 하고 있었다. 천녀와 아이, 나무꾼 이렇게 함께 살지만 할 일이 없어 은하수의 맞은편에서 오이밭을 지킨다. 나무꾼은 배가 고파 실수로 오이를 먹어 대홍수가 일어난다. 그로부터 두 사람은 칠월 칠일 밤에만 은하수의 강물이 마르기 때문에 그때만 만날 수 있다고 한다.⁶³⁾

이 설화는 “칠일 칠일에 만나자”는 것을 ‘칠월 칠일’로 잘못 들어 일 년에 한번 밖에 만날 수 없다는 모티프 d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칠석형의 모티프와 유사하다. 천녀의 날개옷을 훔치는 곳이 물가가 아닌 점은 문헌설화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남자에게 날개옷을 빼앗기는 점, 그의 아내가 되는 점, 아이가 생기는 점, 날개옷을 발견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점은 문헌설화의 모티프와 상당히 유사하다.

두 번째로 남자에게 주어진 난제에 초점을 맞춘 난제형의 내용은 이러하다.

- a. 물가에서 목욕하고 있는 천녀의 날개옷을 인간남자가 훔쳐서 천녀를 아내로 맞는다.
- b. 몇 년 후 천녀는 아이를 낳고 날개옷을 찾아 하늘로 승천하다.
- c. 남자는 천녀가 알려주거나 옆 집 사람, 점쟁이, 노인 등의 도움으로 하늘에 올라간다. (혹은 이러한 전반부 내용이 생략되고 바로 하늘에서 난제형 이야기가 전개 되는 경우도 있다.)
- d. 하늘에서 천녀의 아버지가 남자에게 농경에 관련된 세 가지 난제를 부여 한다.
- e. 주로 천녀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남자는 천녀와 행복하게 산다. (혹은 마지막에

63) 関敬吾『日本昔話大成第2: 本格説話』p.241

오이 밭을 지키다가 천녀의 말을 잊고 오이를 먹다 그 안에서 물이 터져 나와 천녀와 헤어지거나 지상으로 떨어진다.)

천녀의 아버지가 남자에게 내린 세 가지 난제는 “하루 만에 천 평의 산을 개간하여 그 밭을 일구어 그 밭에 오이 씨를 뿌리고 익은 오이를 거두어들이라”와 같이 주로 농사일, 즉 농경에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기미시마는 난제형에 주목하여 「동양의 선녀들」이라는 논문에서 난제형은 중국 조엽수림(照葉樹林) 문화권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사이에서 주로 전승되고 있으며, 특히 이 난제들이 화전경작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점으로 보아 남자가 속해있는 지상의 벼농사 문화와 대립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⁶⁴⁾ 난제형 중에 도쿠시마현(徳島県) 미요시(三好郡)의 날개옷 전승을 하나 살펴보고자 하겠다.

7월의 어느 날 강에서 두 세 명의 천녀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나무에 걸어놓은 날개옷을 사냥꾼이 훔쳐서 한 명의 천녀를 아내로 맞이한다.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기둥 밑에 구멍을 뚫고 숨겨둔 날개옷을 천녀가 찾아서 집 앞 넝쿨 나무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다. 나무꾼은 아지구로, 데구로라는 이름의 두 마리 개를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천녀의 아버지에게 사위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천녀의 아버지는 “하루 동안 메밀 세 말 세 되를 뿌리고, 이것을 베어라. 벤 것을 하루 중에 태워라.”라는 세 가지 난제를 해내면 사위로 맞겠다고 한다. 남자는 천녀의 도움을 받아 난제를 모두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산 속에 작은 오두막집에서 오이 밭을 지키는 것을 명령받으나 목이 마르자 천상에서 오이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천녀의 말을 어기고 오이를 먹는다. 그러자 오이에서 물이 터져 나와 남자는 지상에 떨어졌다. ⁶⁵⁾

이 설화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난제형의 모든 모티프를 지니고 있으며, 이야기의 전반부도 문헌 설화인 『風土記』의 <자료1>과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칠석형과 난제형이 결합된 칠석결합형의 내용은 이러하다.

64) 히구치 아쓰시(樋口淳) 「민담의 국제 비교-天人女房을 둘러싸고-」 『비교 연구를 통한 한국민속과 동아시아』 민속원. 2004. p.640 에서 재인용

65) 関敬吾 『日本昔話大成第2: 本格説話』 pp.242-243

- a. 전반부 내용은 난제형과 동일하다.
- b. 하늘에서 천녀의 아버지는 남자에게 세 가지 난제를 내리고 남자는 주로 천녀의 도움으로 해결한다.
- c. 오이 밭을 지키고 있는 남자에게 천녀가 오이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거나 장인이 오이를 세로로 자르라고 해도 오이를 가로로 자르라고 일러준다.
- d. 남자는 천녀의 말을 잊고 오이를 먹어버리거나 오이를 세로로 자른다.
- e. 오이에서 물이 터져 나와 대홍수가 일어나 은하수가 생겨나서 천녀와 남자는 헤어지게 된다.
- f. 천녀가 “7일, 7일에 만나자”고 한 것을 남자가 ‘7월 7일’이라고 잘못 들어 일 년에 한 번 밖에 만날 수 없다고 한다.

이 유형은 난제형의 이야기와 칠석형의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어서 다른 어느 유형들보다 더 다채롭게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역시 은하수의 유래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복합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는 돗토리현(鳥取県) 도하쿠군(東伯郡)의 날개옷 전승을 하나 살펴보겠다.

겐조(源三)라는 화초를 가꾸는 남자가 있었다. 하늘에서 직녀의 할머니가 매일 직녀에게 겐조의 꽃을 따오라고 시켰다. 겐조가 꽃이 줄어드는 것이 이상해서 땅을 보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직녀를 붙잡고 천녀의 날개옷을 훔쳐 아내로 삼는다. 아이가 생기고 삼년이 지나 천녀는 날개옷을 찾고서 나무 세 그루를 심고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오라고 아이에게 말하고 하늘로 승천한다. 겐조와 아이가 승천하는 도중에 아이가 지상으로 떨어진다. 겐조는 하늘에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원숭이와 거북이, 개미를 구해준다. 직녀의 할머니가 1500 보(步)나 되는 밭에 조 다섯 섬을 뿌리라는 난제를 내자 개미가 도와주고, 연못 안에 있는 배 열매를 따오라는 난제는 거북이와 원숭이가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오이와 수박을 1관 짚어지고 오라고 한다. 그런데 절대 먹지 말라는 금기를 깨고 오이를 먹자 거기서 큰 홍수가 나고 은하수가 생겨났다. 직녀가 “7일, 7일에 만나자”고 한 것을 ‘7월 7일’로 잘못 들어 일 년에 한 번 밖에 만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⁶⁶⁾

이 날개옷 설화는 전반부의 이야기에 다소 차이점을 보인다. 기존에는 천녀가

66) 関敬吾『日本昔話大成第2: 本格説話』 pp.247-248

하강하여 물가에서 목욕하다 남자에게 날개옷을 뺏기는 모티프가 많았으나, 여기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화초를 가꾸는 남자로 설정되어 천녀가 남자의 꽃을 몰래 훔치다가 날개옷을 빼앗기는 모티프로 되어있다. 천녀를 아내로 삼는 점, 아이를 낳는 점, 아내의 뒤를 따라 남자도 승천하는 점에서는 기존 모티프와 동일하나 승천 도중에 아이만 떨어진다는 점은 특이하다.

난제를 부여하는 사람은 천녀의 아버지가 아닌 직녀의 할머니로, 세 가지 난제를 제시하나 두 가지 난제들은 동물들이 보은의 의미로 도와주고 나머지는 실패하여 칠석형의 결말로 이어진다.

구전의 날개옷 설화는 전반부에서 남자가 목욕하고 있는 천녀의 날개옷을 훔쳐 천녀를 아내로 맞는 유형이 일반적이지만, 전반부 내용이 생략되어 바로 칠석형이나 칠석결합형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다. 부부관계의 파탄은 천녀가 아이의 말이나 자장가에서 암시를 받아 날개옷을 발견하여 천녀가 승천하는 것으로 인해 생긴다.

문헌 설화 <자료2>처럼 남자 역시 신선이 되거나, <자료 3>처럼 천녀가 승천하지 못하고 신사에 좌정하는 신사 연기담과 같은 모티프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문헌 설화 <자료 1> <자료 2>에서는 날개옷을 찾는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반면에 구전 설화에서는 자장가나 아이의 말에서 암시를 얻어 날개옷을 찾아 승천하게 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 아내를 쫓아가서 남편도 승천하여 친신이 부여하는 농경에 관련된 세 가지 난제를 수행하거나 그 이후 남편이 오이를 잘못 잘라서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와 홍수가 일어나서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게 되는 칠석설화로 이어지는 부분 또한 문헌 설화와는 다른 점이다.

날개옷 설화들은 이별 후의 재회, 그리고 천녀가 보물과 신성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이 이류혼인담과 다르다. 천녀는 승천할 때 보물이나 신성도 남기지 않고 지상에 남을 남편과의 생활을 걱정하지도 않고 자식을 데리고 가거나 홀로 승천한다. 아이와의 이별의 슬픔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남자도 아이도 같이 가려고 적극적으로 천녀를 설득하지 않는다. 이는 천녀가 자신의 의지로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성을 지상에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구전의 날개옷 설화를 전술한 『風土記』의 문헌 설화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

펴보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첫째, <자료 2>와 같이 남자가 신선이 되었다는 내용이나, <자료 3>과 같이 신사 연기담이 복합된 형태는 구전 설화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자료2><자료3>의 날개옷 설화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본래의 모습에서 변용된 형태라고 생각된다.

둘째, <자료 1>은 천녀의 날개옷을 훔쳐서 결혼하는 것, 원조자로 개가 등장하는 것, 천녀가 날개옷을 찾아서 승천하는 것, 천녀의 자식들이 씨족의 시조가 되는 것 등, 현존하는 구전 설화와 가장 가깝다. 그러므로 <자료 1>은 일본에서 현존하는 문헌 설화·구전 날개옷 설화 중에 가장 오래된 이야기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셋째, 여기에 <자료 2>와 <자료 3>의 날개옷 설화에서의 전개 양상은 문학적인 전개라고 하기보다는 고대인의 생활과 밀접했다. 그들은 현실 생활의 노고와 현실의 중압 속에서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무언가에 기대고 싶고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유토피아를 찾고 부를 구축하려 하였다. 그 무언가는 그들이 믿고 민중에게 내방하는 신에게서 구하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료 2>와 <자료 3>는 고대인들의 심성에 근거하여 힘들고 고된 생활에 대해 벗어나고 초월하고 싶은 소망을 담아 날개옷 설화의 전개양상이 원형에서 벗어나서 변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일본의 ‘날개옷(羽衣)’ 설화의 모티프

여기서는 날개옷 설화를 구성하는 주요 모티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우스다, 기미시마, 가도키 준 등이 날개옷 설화의 모티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모티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시노다 지와키(篠田知和基) 이외에는 찾아 볼 수 없다.

우스다는 날개옷이 감추어진 장소에 주목하여 벼농사 문화와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한편, 기미시마는 천상에서 펼쳐지는 세 가지 난제에 중점을 두어 벼농사와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는 것은 전술한 바이다. 이러한 연구는 날개옷을 감춘 장소나 세 가지 난제가 의미하는 바를 찾아내어서 날개옷 설화의 문화적 배경을 밝히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가도키 준은⁶⁷⁾ 백조 모티프를 고찰하고 있으나 주로 토렘과 관련하여 논하고 있어서 곡령으로서의 백조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며, 후루카와 노리코(古川のり子)는⁶⁸⁾개와 소의 모티프에 한정하여 다양한 모티프를 다루지 않았다. 이에 비해 시노다는 유럽의 백조처녀설화와 비교하면서 날개옷 설화의 모티프를 자세히 고찰하였다.⁶⁹⁾ 그러나 백조처녀 설화에 편중되어 있어 세부적인 모티프 내용의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문헌 설화와 구전 설화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백조’ ‘날개옷’ ‘천녀’의 세 개의 모티프와, 구전 날개옷 설화에만 보이는 ‘승천 방법’ ‘원조자’ ‘세 가지 난제’의 세 개의 모티프를 중점으로 논하고자 한다.

1) 백조(白鳥)

하얀 날개를 퍼덕이며 비상하는 백조는 그 자체가 풍기는 신비한 분위기가 있겠지만 또한 철새이기도 하여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타났다가 또한 날아가 버리

67) 角木純 「羽衣伝説研究：発生理解のための一仮説」 『日本文学』 37号. 1971

68) 古川のり子 「天人女房譚から一牛と犬」 『学習院大学上代文学研究』 12号. 学習院大学上代文学研究. 1987

69) 篠田知和基 「天人女房と世界の類話」 『広島国際研究』 広島市立大学国際学部. 2007

는 것을 보고 백조를 신의 사자로 보는 관념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하겠다. 고대인들은 이러한 백색의 조류가 신들의 세계와 이 세상을 이어주는 존재라고 여겼으며, 백조가 곡식을 영글게 하는 곡령으로 인식되었다. 『古事記』 『日本書紀』 『風土記』 등의 고대 문헌 설화에 이와 같은 관념의 흔적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⁷⁰⁾

새는 고대에서부터 곡령이 변한 것, 혹은 곡령을 운반해주는 동물로 여겨졌다. 그 중에서도 흰 색을 지닌 새는 성스러움과 주술적인 힘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간주되어 새 중에서도 특히, 백조가 곡령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으로써 자리 잡게 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떡 과녁(餅的)’ 전승은⁷¹⁾ 일본의 민간전승에 극히 넓게 퍼져있는 이야기로, 백조와 떡이 곡령을 상징하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자료 4>

옛날 분고국(豊後国) 구주군(球珠郡)에 넓은 들이 있었다. 오호이타군(大分郡)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 옮겨 와서 집을 짓고 밭을 갈고 경작하였다. 수확이 많아 모두 부유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했다.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활쏘기를 하려는데 과녁이 없자 떡을 과녁삼아 활을 쏘자 떡이 갑자기 흰 새가 되어 날아 가버렸다. 그 뒤 점차 집이 몰락해져 여기저기 떠돌다가 죽고 들판은 모두 황폐해지고 말았다. 덴표(天平) 시대에 하야미군(速見郡)에 사는 구니(訓述)라는 사람이 예전의 풍요로웠던 밭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여기에 와서 밭을 경작했지만 싹이 모두 말라 죽어버렸다. 놀랍고도 무서워 두 번 다시 밭을 경작하지 못하고 버리고 오고 말았다고 한다. (「餅的」 『丹後国風土記逸文』)⁷²⁾

<자료 5>

70) 김상규 「곡령에 관한 一考察」 『동북아 문화 연구』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10. p.65

71) ‘떡 과녁’ 전승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a. 농업 경영에 성공한다. b.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서 벼를 함부로 사용한다. c. 활의 과녁을 떡으로 만든다. d. 떡은 백조로 변하여 날아간다. e. 농업이 부진해지고 쇠퇴한다. 関和彦 「餅的伝説」 『日本「神話・伝説」総覧』 新人物往来社 1993. pp.306-307

72) 昔、豊後国球珠の郡にひろき野のある所に、大分の郡にすむ人、その野に來たりて家つくり、田つくりて、すみけり。在り着きて家富み、榮かりけり。酒飲み遊びけるに、とりあえず弓を射けるに的の無かりけるや、餅ひつ括りて、的にして射けるほどに、その餅、白き鳥になりて飛び去りにけり。それより後、次第に衰へて惑ひ亡せにけり。後は広き野になりたりけるを、天平年中に速水の郡に住みける訓述と云ひける人、さしもよくにぎはひたり所の廢にけるを、借しとや思ひけん、また此處に渡りて田を耕たりけるほどに、その苗みな枯れ亡せければ、驚き恐れて、又も耕ず捨てにけりと云える事あり。(「餅的」 『丹後国風土記逸文』) p.514

‘이나리(伊奈利)’라 부르는 것은 하타노나카쓰이에노이미키(秦中家忌寸)의 조상 이로구(伊侶具) 하타노키미(秦公)는 벋 짚단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이로구가 떡을 과녁 삼아 활을 쏘았더니 떡이 하얀 새로 변하여 날아가서 산봉우리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벋이 자라났다. ‘이나리’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이로구의 후손들이 예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신사의 나무를 뽑아 집에 옮겨 심고 융숭히 제사를 올렸다. 옮겨 심은 나무가 소생하면 복을 얻고 고사하면 복이 사라진다고 한다.(「伊奈利神社」 『山城風土記逸文』)
73)

<자료 4>는 부유해진 농민이 사치해지면서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활쏘기를 하려는데 과녁이 없자 떡을 만들어 과녁을 대신한다. 과녁이 된 떡은 백조가 되어 남쪽으로 날아가 버린다. 그 해에 농민은 굶어 죽고 밭은 더 이상 경작되지 못하고 황폐해진다는 내용이다.

<자료 5>에서는 도래인(渡來人)이자 교토(京都)지역의 호족으로 알려진 하타씨(秦氏)의 선조에 얽힌 이야기이다. 떡이 백조로 변하여 날아가지만 다시 백조가 벋으로 환생했다는 것과 이후 후손이 조상의 잘못을 바로잡아 제사를 지내 번성하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자료 4>에서는 보이지 않던 백조가 벋의 혼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전승으로서, 곡령의 실체가 백조였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⁷⁴⁾

이는 백조가 곡식을 가져다주는 보조자로 곡령이 백조임을 말하고 있다. 날개옷 설화에 백조가 등장한다는 농경 신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2) 날개옷(羽衣)

날개옷 설화에서 인간의 남성과 결혼하는 이류(異類)의 여성은 새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 중에서도 백조가 가장 많지만 그렇다고 백조에

73)伊奈利者と称ふは、秦中家忌寸等が遠祖、伊侶具秦公、稲梁を積みて富み裕ひき。乃ち餅を用いて的と為しかば、白き鳥と化成して飛び翔りて山の峯に居り、稲なり生ひき。遂に社の名と為しき。其の苗裔に至り、先の過を悔いて、社の木を抜こじて、家に植ゑて携み祭りき。今、其の木を植ゑて蘇きば福を得、其の木を植ゑて枯れば福あらず。(『山城国風土記』逸文「伊奈利社」) p.419-420

74) 김상규, 앞의 논문, p.70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류의 여성은 스스로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남성과 같이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결국 파탄되고 여성은 하늘로 올라가거나 혹은 고향의 나라로 돌아간다.

인간이 날개옷을 숨기는 행위는 천녀를 인간의 모습으로 영원히 인간계에 머물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날개옷을 훔치고 숨기는 모티프는 날개옷 설화에서 핵심 모티프로써 존재한다. 앞에서 인용한 <자료 1>, <자료 2>, <자료 3>도 모두 이 훔치는 것과 숨기는 모티프가 있다.

이나다 고지(稲田浩二)는 천녀와 인간계의 남자와의 이류혼인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이에 날개옷 훔치기의 모티프를 이야기의 핵심으로 한 연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천녀와 인간계의 남자가 맺어지는 이류혼인의 유형은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은 세 종류가 된다.

- a. 천녀가 인간계를 도와주려는 의지에 따라 인간계 남자와 혼인
- b. 천녀와 남자가 서로 사랑해서 하는 혼인
- c. 남자의 날개옷 훔치기와 강제적 혼인

->천녀와의 혼인을 통하여 천상계에서 인간계에 가져다준 혜택은 인류 문화의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남자 주인공은 이 혜택을 얻기 위해서 천녀와의 혼인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부분의 날개옷 설화에서는 a 와 b 보다도 c의 혼인유형이 많은데, 날개옷 훔치기 모티프를 이야기의 핵심으로 한 연유는 이 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⁷⁵⁾

훔치고 뺏는 날개옷은 주술적인 옷으로, 천녀가 이것을 걸침으로써 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갖게 되며 또 날개옷을 숨기는 행위는 천녀의 주술적인 능력과 권리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과 파탄의 조건으로써 백조의 毛衣, 혹은 천녀의 날개옷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가도키 준은 백조의 날개옷은 세속적인 인간이 천상의 존재와 결합하기 위한 매개체라고 보았다.

백조의 날개옷은 인간과 초자연적물인 백조를 결합해주는 매개체로서 설정되어

75) 稲田浩二 『昔話の源流』 三弥井書店. 1997. pp. 138-138

있다. 인간과 천녀인 아내는 이러한 매개체가 없으면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천녀가 날개옷을 다시 탈환함으로써 백조는 남자의 곁을 떠난다.⁷⁶⁾

지상의 인간과 이류의 천녀인 아내는 그들을 이어주는 어느 하나의 매개체가 없으면 만날 수도 없고 결합할 수도 없는 존재이다. 이들을 만날 수 있게 연결해 주고 결합시켜 준 것이 바로 날개옷이다.

이러한 날개옷에 대해 이나다 고지(稲田浩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녀의 날개옷은 천녀에게 있어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즉 그것은 천상계(혹은 異界)와 인간계를 오고 가는 왕복 이동의 기능과 이류(異類)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혹은 인간에서 원래의 이류로 돌아가는 변신의 기능이다. 이 날개옷은 천녀의 신비한 힘과 모습을 지니는 부적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것이고 그 대부분은 육체의 일부분이다.⁷⁷⁾

천녀의 날개옷은 천녀에게 있어서 인간과의 인연을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로 작용될 수도 있지만, 원래 날개옷의 본질의 기능은 두 개의 세계를 왕복 이동할 수 있는 기능과 이류와 인간의 모습에서, 혹은 인간에서 이류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주술적인 힘을 지니는 날개옷은 천손강림 신화에서 천손 호노니기기를 감싼 ‘마도코오후후수마(真床追衾)’나 바다 저 편에서 내방할 때 스쿠나비코나가 입었던 ‘히무시의 가죽(ヒムシの皮)’⁷⁸⁾ 등에서도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즉 하늘이나 바다 안, 바다 저편, 강의 상류에서 내방하는 신은 주술적인 힘을 지녀야한다고 고대인들은 믿었으며, 그 믿음이 날개옷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날개옷을 빼앗긴다는 것은 천녀가 주술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만 날개옷을 다시 찾아내 입는다는 것은 천녀가 상실한 주술적인 힘과 왕복 이동의 기능과 변신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76) 角木純, 앞의 논문, p.17

77) 稲田浩二, 앞의 글. p.132

78) 스쿠나비코나는 ‘히무시의 가죽(ヒムシの皮)’을 입고 바다 저 쪽에서 내방하였다고 전한다. ‘ヒムシの皮’는 나방(蛾)이라는 설, 신령스러운 벌레(靈虫, ひむし)의 설등이 있다. 西宮一民校注『古事記』新潮社.1969. p.74

3) 천녀 (天女)

천녀는 이류의 존재로 날개옷을 몸에 지니고 있지만 인간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다. 앞에 제시한 자료 중에 특히 <자료3>에서는 천녀가 인간이 지닌 다양한 감정 변화를 보이고, 노부부가 쫓겨낼 때에 인간적인 정으로 호소하는 부분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천녀아내 전승에서는 보통 이류의 천녀는 항상 인간계에 대해 호의적이며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앞에서 제시된 <자료 1>이나 <자료 2>에서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없다.

나카시마 에쓰지(中島悦次)는 천녀에 대해서 하늘, 바다, 강, 상류 등에서 내방하여 인간 남자에게 풍요와 복을 가져다주는 이류의 여자는 행복을 원하는 인간의 본능에 의해 만들어진 시적공상이라고 논하였으나⁷⁹⁾ 날개옷 설화에서의 천녀의 실체를 시적공상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이류아내(異類女房)’⁸⁰⁾라고 불리는 유형은 이류의 여자가 인간 여자로 변신해서 인간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 인간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동적이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은 이류의 아내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천녀아내 전승에서는 인간계의 남자가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에 의해 천계에서 내려와서 목욕하고 있는 천녀를 지상에 머무르도록 하여 자신의 아내로 살게 한다. 천녀는 처음에 이에 반대하지만, 결국에는 수동적인 태도로 거의 남자가 말하는 대로 따라간다. 남자는 천녀를 지상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천상계와 인간계 사이의 왕복에 필요한 날개옷을 몰래 숨겨 천녀는 돌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천녀는 원래 나라인 천상계에 돌아갈 방법을 잃고 인간 여자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게 된다.⁸¹⁾

한편, 인간이 신이(神異)한 여성과 부부가 되는 날개옷 설화 <자료 1>과 <자료 2>, 그리고 천녀를 양녀를 삼은 날개옷 설화 <자료3>은 모두 인연이 끊어지는 ‘절연(絶縁)’으로 끝나는 결말은 똑같다.

일본의 날개옷 설화를 보면 천녀는 대부분이 천상에서 물가에 내려와서 날개

79) 中島悦次 「竹取物語と羽衣説話」 『解釈と鑑賞』 1958

80) 관음보살아내(觀音女房) · 그림종이아내(繪紙女房) · 뱀아내(蛇女房) · 학아내(鶴女房) 등이 이류아내(異類女房)의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81) 稲田浩二, 앞의 글. pp.131-132

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 이는 천녀가 원래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물가, 즉 바다와 관련 있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원래 일본에서의 유토피아는 도쿄요(常世)라 하여 바다 밑이나 바다 저 편을 이르는 말이었다. 우렁각시 설화나 도요타마히메(豊玉姬) 신화와 같은 이류 혼인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여신들은 바다 저편에서 내방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바다와 밀접하다. 이로 인해서 도쿄요나 오키나와의 니라이카나이(ニライカナイ)⁸²⁾와 같은 바다 저편의 이상향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바다 저편의 이상향, 즉 도쿄요나 니라이카나이에서 신성스러운 존재가 인간세계로 내방하여 풍요와 복을 전해준다고 여겨졌다. 이후 신선사상이나 대륙계의 '천상' 개념이 수용되면서 인간에게 풍요와 복을 가져다주는 천녀 역시 천상의 존재로 상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자료 3>의 '나구 신사'의 날개옷 설화에 등장하는 천녀가 곡령적인 존재임을 '도요우카노메노미코토'라는 신명(神名)에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천녀는 인간에게 곡식이며 풍요와 행복을 가져온다. 또 구전 날개옷 설화에서도 천녀의 날개옷이 벗질단 아래에 감추어져 있다는 모티프가 있어서 천녀가 곡령의 여신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백조는 곡령적인 존재이며 농경신화를 배경으로 한다. <자료 1>에서는 천녀가 백조로 나타나는 점에서도 곡령과 관계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이는 천녀와 백조가 같이 겹쳐져서 날개옷 설화의 배경은 농경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승천 방법

지상에서 천녀를 아내로 맞이했던 남편은 날개옷을 입고 사라진 아내를 찾아

82) '니라이카나이'는 인간이 사는 세계와 대비되는 이계(異界)를 말한다. 벼와 조 등 주요한 곡물의 수확을 마치고 새로운 농경의 순환의 시작, 즉 해가 바뀌는 때 니라이카나이에서 신이 인간 세계·촌락에 내방하여 행복이나 풍요를 가져온다는 신앙이 오키나와 각지의 제사, 농경 의례, 신요(神謠), 각종 의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신앙의 표출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니라이카이는 신이 있는 곳, 그곳에서 여러 가지 풍요를 가져다준다는 관념뿐만 아니라 때로는 악과 재앙을 가져오는 존재가 산다는 전승도 있어서, 이러한 양면적 의미는 오키나와 열도의 내방신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福田アジオ・新谷尚紀・湯川洋司・神田より子・中込睦子・渡邊欣雄 『日本民族大辞典下』吉川弘文館, 2000. p.289

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데 남편의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도 구전의 날개옷 설화에서는 매우 다채롭다. 하늘에서 아내와 재회하지만 그 결말 역시 다양하게 전개된다. 또한 하늘에서 아내의 도움으로 난제를 해결하지만 결국 다시 아내와 헤어져서 지상으로 되돌아오거나 또는 일 년에 단 하루만 만나게 되는 칠석 설화로 한 번 씩 만나게 되는 칠석 설화의 형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⁸³⁾

여기서는 남편이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 방법을 『日本昔話名彙』 및 『日本昔話大成2』에 채록된 천녀아내 전승에서 찾아 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주인공 남편이 아내를 찾아서 하늘로 올라갈 때 주로 생육이 빠른 넝쿨 식물이나 키가 큰 나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넝쿨 식물이나 키가 큰 나무는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우주목이라 할 수 있다. 사용되는 식물들은 밤메꽃, 자작나무, 소나무, 완두 넝쿨, 오이, 호박 넝쿨 등 매우 다양하다. 전승되는 지역은 주로 돗토리(鳥取), 히로시마(広島), 야마구치(山口), 구마모토(熊本), 나가사키(長崎), 가고시마(鹿児島) 등 주로 주고쿠(中国)지방과 규슈(九州)의 서해안 지역이다.⁸⁴⁾

세키게이코의 『日本昔話大成 2』을 참고로 22개의 채록지역을 중심으로 천녀를 찾으러 하늘로 올라가는 남자의 승천 방법을 조사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채록 지역	대표적인 승천 조건	승천 조건	승천 시
鹿児島県 奄美大島	짚신	짚신 1000 켄레를 연결	짚신 999 켄레와 개를 연결하여 승천
熊本県 飽託郡		짚신 1000 켄레를 오이의 비료로 묻기	짚신 999 켄레와 개를 위로 던지고 다리를 붙잡고 승천
熊本県 本渡市		짚신 100 켄레를 수세미 주변에 비료로 묻기	짚신 99 켄레와 개 꼬리에 매달려 승천
香川県 三豊郡志々島		짚신 1000 켄레를 연결	짚신 999 켄레와 마중 나온 구름에 의해 승천
山形県 最上郡		짚신 1000 켄레를 연결	짚신 1000 켄레를 다 모아 승천

83) 성기열, 앞의 논문. p.159

84) 김환희, 앞의 논문 p.103

岡山県 後月郡		옷을 비료로 하여 밤메꽃 키우기	밤메꽃이 조금 부족 하여 개와 아이를 던져 줄로 끌어올림
福島県 南会津郡	밤메꽃	하룻밤 사이에 밤메꽃 씨를 뿌려 1000肩까지 비료 주기	999肩까지 비료를 주고 개의 조력 으로 승천
山形県 飽海郡		밤메꽃 씨를 심고 1000駄의 비료 주기	999駄의 비료와 아내의 조력으로 승천
富山県 西砺波郡	나팔꽃	나팔꽃 씨 심기	나팔꽃을 타고 승천
大分県 宇佐郡	소	소 1000 마리를 묻고 호박 심기	소 999 마리와 아이의 조력
長崎県 南高来郡			소 999마리와 천녀의 조력
香川県 仲多度郡	두레박	두레박 타기	두레박 타고 승천
広島県 佐伯郡		금색의 두레박 타기	금색의 두레박 타고 승천
山口県 大島郡	완두	완두를 가마 앞에 심기	완두 넝쿨 타고 승천
広島県 比婆郡	소나무, 말로 만든 가축신	소나무를 심고 닭이 울 때까지 말로 만든 가축신 100결레를 태워 비료로 하기	말로 만든 가축신 99 결레를 비료로 심은 소나무와 개의 조력으로 승천
島取県 東伯郡	이(風)의 가축과 벼룩의 가축	이(風)의 가축 3점 3말과 벼룩의 가축 3점 3말 쌓기	이(風)의 가축 3점 3말과 벼룩의 가축 3점 3말 쌓아 승천
新潟県 北魚沼郡	높은 나무가 되는 씨	높은 나무가 되는 씨를 심기	승천 도중 남자는 떨어뜨리고 아들만 살려줌
新潟県 佐渡郡	1000인분의 오이	1000인분의 오이를 모아 오이 씨 뿌리기	999인분의 오이와 천녀의 조력으로 승천
鹿児島県 鹿児島市	하늘을 향해 손짓	하늘을 향해 7번 손짓	하늘을 향해 7번 손짓하자 줄이 내려옴
埼玉県 川越市	바구니	집 앞에 내려온 바구니 타기	바구니 타고 승천
宮城県 本吉郡	오이 씨	오이 씨와 잣더미	999가마의 잣더미와

		1000 가마 쌓은 뒤 오이 씨 타고 승천	개의 조력으로 승천
青森県 津軽郡	한 줌의 콩	한 줌의 콩을 주고 열매가 커지면 심어 그것을 타고 승천	아이와 그 즐거움을 잡고 승천

승천 방법으로는 짚신을 이용하는 것이 5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밤메꽃의 넝쿨을 이용하는 것이 3례, 소 2례, 두레박 2례, 나머지 나팔꽃·완두·소나무와 말로 만든 가축신·이(飢)의 가축과 벼룩의 가축·높은 나무가 되는 씨·1000 인분의 오이·하늘을 향해 손짓·바구니·오이 씨·한 줌의 콩이 각각 1례로 채록되었다. 이처럼 일본에서의 남자 승천 방법은 주로 짚신을 이용하거나 넝쿨식물을 이용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의 김환희의 논문에 게재된 17편의 나무꾼과 선녀 설화를 살펴보니, 남자의 승천 방법은 두레박이 5례, 호박넝쿨 3례, 나무열매 1례, 바가지 1례, 타루박 1례, 씨알/넝쿨 1례, 바가지씨 1례, 말 1례가 있다. 나머지 3편의 레에는 승천 방법에 대한 기술이 없었다.⁸⁵⁾

일본에서는 두레박의 예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한국에서의 승천 방법은 남자가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들이 압도적이다. 그 다음 많은 예로는 일본과 비슷하게 넝쿨이 보이나 주로 호박넝쿨을 이용한다.

5) 원조자

85) 17편의 나무꾼과 선녀이야기는 김환희의 앞의 논문을 참고로 하였다.

연도	설화명	유형	연도	설화명	유형
1898	박씨	천상 시련 극복형	1932	선녀의 깃옷	선녀 승천형
1910	선녀와 나무꾼	나무꾼 승천형	1934	나무꾼과 선녀	빼꼭새 유래형
1913	선녀와 나무꾼	수탉 유래형	1934/1936	나무꾼과 선녀	천상 시련 극복형
1919	빼꾸기	빼꼭새 유래형	1937	나무꾼과 선녀	천상 시련 극복형
1923	웅계전설	수탉 유래형	1937	나무꾼과 선녀	천상 시련 극복형
1926	나무꾼과 선녀	나무꾼 지상 하강형	1938	나무꾼과 선녀	천상 시련 극복형
1927	금강산 선녀 설화	수탉 유래형	1940	선녀의 옷과 수탉	수탉 유래형
1927	금강산 초부가 우의 천녀를 취한 설	선녀 승천형	1943	나무꾼과 선녀	선녀 승천형
1932	총각과 선녀	수탉 유래형			

김환희 「옛이야기 전승과 언어 제국주의-강제된 일본어 교육이<나무꾼과 선녀>전승에 미친 영향」 『아동 청소년문학연구』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8년. p.96

날개옷을 훔치는 남자를 도와주는 원조자가 등장하는데 하늘에 오르기 전과 오른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혼의 남자가 우연히 동물을 구해주게 된다. 도움을 받은 너구리나⁸⁶⁾ 사슴⁸⁷⁾과 같은 동물이 은혜를 갚기 위하여 남자에게 천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목욕하는 곳을 가르쳐준다. 또는 혹은 신의 계시로 의해 남자는 천녀를 아내를 맞이하게 되기도 한다.⁸⁸⁾ 특히 사슴이 원조자로 등장하는 것은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설화와 매우 흡사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무꾼과 선녀 설화에서 남자를 도와주는 원조자로 노루 7례, 사슴 7례, 토끼 1례, 꿈에서 나타난 영감님 1례, 새 1례가 있다.⁸⁹⁾

날개옷을 몰래 숨기고 천녀와 결혼한 남자는 부재중에 아내가 사라지자 아내의 행방을 몰라서 슬퍼하고 있는데, 옆 집 남자(山口県 大島郡)나 점쟁이 (広島県 比婆郡, 大分県 宇佐郡 双三郡), 노파(新潟県 佐渡郡) 등이 천녀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알려주면서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승천 방법까지 가르쳐준다.

남자가 하늘로 오를 때에는 짚신 999 켤레나 소 999 마리를 비료로 넣을 식물아래 묻었지만 짚신 천 켤레 혹은 소 천 마리라는 원래의 승천 조건을 채울 수 없어서 하늘에 닿지 못한다. 그때 남자는 개를 매달거나 개의 꼬리에 매달리거나⁹⁰⁾ 또는 천녀의 도움을 받아 하늘에 오른다. 천녀는 베틀의 북이나 장대, 머리카락으로 남편을 끌어올려준다.⁹¹⁾

아내를 찾아 하늘로 올라간 남자는 천녀의 아버지로부터 세 가지 난제를 부여

86) 사냥꾼에게 쫓기던 너구리를 할아버지가 도와준다. 천녀가 하늘로 승천해서 사라지자 너구리가 다시 나타나서 할아버지에게 완두를 주면서 완두를 심고 자라면 넣을 줄을 잡고 올라가라고 알려준다. (山口県 大島郡)

87) 남자가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을 도와준다. 늦은 밤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서 자신은 남자가 구해준 사슴이라 말한다. 노인은 “내일 강에 천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면서 날개옷을 소나무 가지에 걸어두니 그 날개옷을 몰래 숨기고 천녀를 아내로 삼으시오. 아이가 두 명 태어날 때까지 날개옷을 보여주지 마시오.” 라고 말한다. 천녀가 사라진 후에 다시 그 백발 노인이 나타나 내일 아침 동나무가 내려오니 그 안에 들어가서 승천하라고 가르쳐준다. (広島県 佐伯郡)

나뭇꾼이 사슴을 구해준다. 사슴은 그 보답으로 못가에서 천녀가 목욕을 하고 있으니 날개옷을 숨겨서 아내로 맞고, 아이가 두 명 이상 생길 때까지는 날개옷을 보여주지 말라고 가르쳐 준다. 천녀가 사라지자 다시 사슴이 나타나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때 몰래 타서 승천하라고 가르쳐준다. (香川県 仲多度郡)

88) 젊은이가 아내를 얻고 싶어서 신에게 기도했다. 신이 “오늘 밤 이 절에 천녀가 내려와 춤추고 있을 것이니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으면 날개옷을 숨기라”고 알려준다. (富山県 西砺波郡)

89) 김환희. 앞의 논문 pp.91-93

90) 작은 개를 매달거나 (鹿兒島県 奄美大島), 빨간 개의 다리를 잡거나 (広島県 比婆郡), 개의 꼬리를 잡고 하늘로 올라간다. (熊本県 本渡市).

91) 천상에서 물을 길러 나온 아내가 남편을 발견하여 하늘로 끌어 올려주는데 (長崎県 南高来郡), 장대로 끌어올리거나 (大分県 宇佐郡), 베틀을 짜다가 북을 내밀어서 남자를 끌어올려 준다 (香川県 三豊郡志々島). 또는 천녀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남자를 끌어올려 주기도 한다 (新潟県 佐渡郡, 山形県 飽海郡).

받게 되는데 주로 아내인 천녀가 남자를 돕는 원조자 역할을 한다.⁹²⁾ 천녀 외에 남자에게 도움을 받았던 동물이 보은의 의미로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동물로는 너구리나 벌, 여우⁹³⁾ 작은 새, 개미, 거북이, 원숭이 등이 있다. ⁹⁴⁾

6) 세 가지 난제

천녀아내 전승에서 아내를 찾아 하늘에 올라간 남자는 거의 천신 (혹은 천녀이거나 천녀에 관계된 인물)에게서 세 가지의 난제를 부여받는다. 난제를 부여받고 해결 후, 천녀가 남자에게 하늘의 밭의 오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깜빡 잊고 먹어버리거나 오이를 잘못 잘라서 홍수가 났다는 이야기가 많다. 7월 7일에 만나자고 말했다는 이야기에서는 칠석 유래담이 생겨난다.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설화에서 금기라고 하면 대부분 “천녀의 날개옷을 돌려주지 말라”는 것 밖에 없다. 한국에도 견우와 직녀가 나오는 칠석 유래담이 전해지고 있으나 이것은 ‘견우와 직녀’ 설화로, 나무꾼과 선녀 설화와는 다르게 분류되는 이야기이다.

세키 게이고의 『日本昔話大成第 2』를 참고하여 10곳의 채록지역의 세 가지 난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채록 지역	첫 번째 난제	두 번째 난제	세 번째 난제
鹿児島県 鹿児島市	5정보 받을 경작해라	오이 씨를 뿌려라	오이 열매를 따라
熊本県 天草郡	조를 뿌려라	조를 주워라	1정보 밭의 잡초를 뽑아라
徳島県 三好郡	하루 동안 메밀 3말	벤 메밀을 태워라	메밀을 뿌려라

92) 농경에 관련된 난제를 천녀가 도와서 해결해 주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鹿児島県 鹿児島市, 熊本県 天草郡, 高知県 高岡郡, 香川県 三豊郡志々島, 徳島県 三好郡, 広島県 双三郡, 島根県 邑智郡과 八束郡, 新潟県 佐渡郡.

93) 천녀가 많은 양의 참깨 씨를 뿌리고 “그것을 주워라”고 시킨다.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너구리가 나타나 씨 줍기를 도와준다. 같은 지역의 다른 이야기로는 할아버지가 하늘로 가는 도중에 벌과 여우를 도와준다. 천제가 콩 뿌리기를, 천녀가 뿌린 씨를 줍게 한다. 이 때 여우가 나타나서 도와준다. (山口県 大島郡)

94) 새가 도와준다. 같은 지역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남자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는 원숭이, 거북이, 개미를 구해준다. 개미, 거북이, 원숭이가 하늘에서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鳥取県 東伯郡)

	3되를 뿌리고 이것을 베어라		
山口県 大島郡	콩 씨앗을 뿌려라	뿌린 씨를 주워라	3명의 천녀 중 좋아하는 여인을 잔으로 가리켜라
島根県 八束郡	8반(反) 밭에 8말의 조를 뿌려라	뿌린 조를 전부 되에 주워 담아라	오이와 수박의 잡초를 뽑아라
鳥取県 東伯郡	5반(反) 밭에 조를 5가마 뿌려라	연못 안에 배의 열매를 따와라	오이와 수박 1관을 짊어지고 와라
新潟県 佐渡郡	사부토리	아쓰토리	오이 1000섬 1000가마니 만들기
秋田県 平鹿郡	फल을 베는 곳을 개간하라	밭에 오이를 뿌려라	오이가 익으면 까마귀로부터 오이 밭을 지켜라
宮城県 本吉郡	하루 동안에 뒷산의 나무를 베어라	점심 전에 오이 씨를 뿌려라	하루 동안에 나무뿌리를 세워라.

일본의 날개옷 설화에서의 남편은 천상에 오르자 장인인 천신에게서 여러 가지 과제를 부여 받는다. “하루 내 천 평의 산을 개간하여 그 밭을 일구고, 그 밭에 오이 씨를 뿌려서 익은 오이를 거두어들이라” 라는 난제들이다. 이 난제들은 모두 농경, 특히 밭농사 문화와 많이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난제 중에서 오이밭을 지킨다거나 오이 씨를 뿌린다는 것에서 유독 오이가 많이 관련되어 있다. 이는 뒷부분에 남자가 실수로 오이를 먹거나 오이를 잘못 잘라서 오이에서 물이 터져 나와 은하수가 생겨 남자와 천녀가 헤어지게 되는 칠석형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설화에서는 천녀 아버지가 부여하는 과제는 수로 수탉 또는 바늘로 변신한 자신을 찾으라는 숨바꼭질 내기, 인간 세상에 쓴 화살을 찾아오기, 쥐나라 또는 고양이 왕국의 보물 가져오기, 지하세계에 내려가 쥐뿔 또는 쥐껍데기 가져오기 등과 같은 과제들이다. 즉 한국 설화에서 나무꾼이 하늘에 올라가 수행하는 과제를 굳이 찾자면 쥐뿔 꺾어오기 또는 고양이 왕국의 천도 따오기 정도이다.⁹⁵⁾

일본의 날개옷 설화에서 세 가지 난제의 모든 역경은 거의 천녀의 도움으로 모두 해결이 된다. 그러나 최후의 시험이 그 오이를 놓고 벌어진다. 천신은 “오

95) 김환희 「<나무꾼과 선녀>와 일본<날개옷>설화의 비교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가능성」 p.101

이를 세로로 자르라” 고 명령을 하는데 천녀가 가로로 자르라고 일러주지만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잊어버리고 세로로 자른다. 그러자 오이에서 물이 터져 나와 모두 갈라지면서 대홍수가 일고 남자는 천녀와 헤어지게 된다. 남자는 지상으로 떨어지거나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천녀와 떨어져서 7월 7일, 1년에 한 번만 보게 된다는 칠석 설화의 유래를 갖추게 된다.

Ⅲ. 결론

날개옷 설화는 하늘에서 천녀가 백조나 다른 새의 모습을 하고 지상으로 내려와 날개옷을 벗고 목욕을 하다가 인간 남자에게 날개옷을 빼앗겨 그 아내가 되어 지상에 머물러 살다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유럽, 아메리카, 한국, 동아시아 지역까지 폭 넓게 전승되고 있다.

날개옷 설화는 천상과 지상의 결합, 그리고 신성성과의 결합을 꿈꾸는 인간적인 염원에 의해서 생겨난 이야기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날개옷 설화는 여러 이야기와 연계될 수 있는데, 인간의 남자가 이류(異類)의 여자와 결합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면 이류혼인담, 하늘에서 내려온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천녀아내 전승, 그리고 천녀가 백조나 흰 새가 내려와 천녀로 변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백조처녀 설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의 날개옷 설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날개옷을 숨긴 장소나 천상에서 부여된 세 가지 난제에 주목하여 설화의 배경 문화를 찾는 연구, 또는 비교 문학적 입장에서 유럽의 백조처녀 설화나 중국의 날개옷 설화를 비교하여, 일본의 날개옷 설화의 연원을 찾는 연구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이외 신화적인 면으로 접목시켜서 신혼(神婚)설화와 연계하거나 토테미즘에 연계한 연구도 다소 보인다.

그러나 외국의 날개옷 설화와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風土記』의 문헌 설화자료와 전국적으로 분포된 구전자료를 세밀하게 비교, 고찰하여 일본의 날개옷 설화를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風土記』의 3편의 날개옷 설화와 세키 게이코의 『日本昔話大成2』에 채록된 130편의 구전 자료를 중심으로 날개옷 설화를 고찰했다.

우선 본론의 제1장에서는 일본의 날개옷 설화의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본 후, 일본의 날개옷 설화의 개략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風土記』의 3편의 날개옷 설화를 살펴보았다.

‘이카고 작은 강’ 날개옷 설화는 천녀가 백조가 되어 날아와서 목욕을 하다가

인간 남자에게 날개옷을 빼앗기고 그의 아내가 된다. 그 후 네 명의 아이를 낳아서 하늘로 승천하고 그 아이들은 이카토미노무라지의 선조가 된다. 이는 백조천녀 설화와 천녀 시조형이 섞인 설화이다.

‘미호노마쓰바라(三保松原)’ 날개옷 설화는 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날개옷을 소나무 가지에 말리고 있었는데 어부가 날개옷을 빼앗고 신녀를 아내로 삼는다. 어느 날 신녀는 날개옷을 찾고 승천하였고 남자도 신선이 되어 승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 ‘登仙’이란 말에서는 당시 중국의 신선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전승을 토대로 謠曲 『羽衣』이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 또한 비슷하였다.

‘나구 신사(奈具社)’ 날개옷 설화는 복합·변형된 날개옷 설화라 할 수 있다. 여신이 나구 신사에 좌정하게 되는 연유를 설명하는 신사 연기담, 아라시오촌과 나기촌의 지명 유래를 설명하는 지명 유래담, 천녀가 추방되는 용궁동자형, 천녀로 인해 노부부가 부자가 된다는 장자치부담의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구전 날개옷 설화를 살펴본 후, 제4장에서는 백조·날개옷·천녀·승천 방법·원조자·세 가지 난제의 6종류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일본의 구전 날개옷 설화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현재 130여 편의 이야기가 채록되고 있다. 구전 설화는 천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하다가 남자에게 날개옷을 빼앗겨 그의 아내가 되는 점, 아이가 태어나는 점, 천녀가 날개옷을 되찾고 승천하는 점의 전반부까지의 내용은 문헌 설화와 동일하나, 천녀 승천 후에 후반부의 내용은 남자도 천녀의 아내를 따라 승천한 뒤 여러 일을 겪는다는 점에서는 문헌 설화와는 확연히 다르다. 남자는 승천 후, 천인에게서 세 가지 난제를 부여 받기도 하고 오이를 잘못 자르거나 실수로 먹어서 천녀와 헤어지기도 한다. 구전 설화는 문헌 설화보다 그 내용이 풍부하여, 그 결말에 따라서 칠석형, 난제형, 칠석 결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날개옷 설화를 구성하는 6개의 모티프, 즉 백조, 날개옷, 천녀, 승천 방법, 원조자, 세 가지 난제를 중점으로 일본의 날개옷 설화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날개옷 설화는 원조자로서 사슴이 등장하거나, 여덟 명의 천녀의 하강, 넝쿨식물을 심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 방법 등에 있어서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와 유사점이 많지만 이에 대해 거의 언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일본의 ‘날개옷 설화’와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를 비교, 고찰하여 그 유사점과 상이점을 찾아보고, 날개옷 설화의 연원관계를 찾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1. 텍스트

秋本吉郎 『風土記』(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1958

関敬吾 『日本昔話大成 第2;本格説話』 角川書店. 1979

2. 국내문헌

강용자 옮김 『풍토기』 지만지. 2008

권오경 「동아시아 곡신신화(穀神神話) 연구-한국의 관련 신화와의 비교를 곁하여」 『語文學』 한국어문학회. 2008

김상규 「곡령에 관한 一考察」 『동북아 문화 연구』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10

김화경 『일본의 신화』 문학과 지성사. 2002

_____ 「일본 날개옷 설화의 연구-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설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고찰」 『語文學』 한국어문학회. 2007

김환희 「<나무꾼과 선녀>와 일본<날개옷>설화의 비교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가능성」 『열상고전연구』 열상고전연구회. 2007

_____ 「옛 이야기 전승과 언어 제국주의-강제된 일본어 교육이<나무꾼과 선녀>전승에 미친 영향」 『아동 청소년 문학연구』 한국아동 청소년문학학회. 2008

김홍국 『류큐설화집(琉球説話集) 유로설전(遺老説傳)』 보고서. 2008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집문당.1993

성기열 「民譚 ‘선녀와 나무꾼’의 韓日比較」 『신라문화제』 제3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 연구소. 1982

성은구 역주 『日本書紀』 고려원. 1987

이관일 「求婚者・夫婦에 관한 說話의 한 研究 - 백조 소녀 전설을 중심으로-」 『論文集』 總神大學校.1981

- 이부영 「선녀와 나무꾼 - ‘아니마를 찾아서」 『韓國民譚의深層分析』 집문당. 1995
- 이지희 「滿族의 천녀시조모와 ‘天女之子’형 시조신화」 『中國文學研究』 한국중문학회. 2011
- 임성철 『일본고전시가문학에 나타난 자연』 보고사. 2002
- 장두식 「몽골의 백조소녀형 설화의 전승양상 연구」 『몽골학』 한국 몽골 학회. 2003
- 정재서 『不死의 신화와 사상-산해경, 포박자, 열선전, 신선전에 대한 탐구』 민음사. 1994
- 체렌소드눔 · 옹긴이 이평래 『몽골 민간 신화』 대원사. 2001
- 히구치 아쓰시(樋口淳) 「민담의 국제 비교-天人女房을 둘러싸고-」 『비교 연구를 통한 한국민속과 동아시아』 민속원. 2004

3. 일본문헌

- 東喜望 『沖繩・奄美の説話と伝承』 おうふう. 1999
- 伊東一郎ほか 『世界の神話伝説・総解説』 自由国民社. 1982
- 井野川潔 「‘天女伝説’の渡来と移動」 『日本文化と朝鮮 1』 朝鮮文化社. 1973
- 稲田浩二 『昔話の源流』 三弥井書店. 1997
- 植垣節也 『風土記』 小学館. 1997
- 浮田典良 · 中村和郎 · 高橋伸夫 『日本地名大百科』 小学館. 1996
- 小川光暘 「竹取物語の形成と外来思想」 『人文科学』 京都同志社大学人文科学研究所. 1974
- 大林太郎 『稲作の神話』 弘文堂. 1973
- 大林太郎 · 吉田敦彦 『日本神話事典』 大和書房. 1997
- 大橋純子 「日本靈異記上卷券二縁の特質:昔話‘狐女房’‘天人女房’との比較を中心に」 『CUJU gazette』 中部大学. 1993
- 小野寛 · 桜井満 『上代文学研究事典』 おうふう. 1996
- 折口信夫 『折口信夫全集』 (第12卷) 中央公論社. 1975

- 角木純「羽衣伝説研究：発生理解のための一仮説」『日本文学』37号. 1971
- 神田秀夫・国東文麿『日本の説話一古代』東京美術. 1973
- 君島久子『日本民間伝承の源流』小学館.1989
- _____「羽衣説話の生業形態に関する一試論」『岐阜聖徳学園大学紀要』37号 岐阜聖徳学園大学教育学部・外国語学部紀要編集委員会. 1999
- 倉塚暁子『巫女の文化』平凡社. 1979
- 阪下圭八「イナビツマー播磨風土記の聖婚説話」『文学』 1971
- 下出積与『神仙思想』吉川弘文館. 1968
- 篠田知和基「天人女房と世界の類話」『広島国際研究』13号. 広島市立大学国際学部. 2007
- _____「鳥女房・白鳥の騎士」『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一文学』38号. 名古屋大学文学部. 1992
- 関敬吾『関敬吾著作集2:昔話の歴史』同朋舎. 1982
- 高柳光寿、竹内理三『角川日本史辞典 第三版』角川書店. 1966
- 武田正『日本昔話の伝承構造』名著出版. 1992
- _____『昔話世界の成立一昔話研究序説』三弥井書店. 1979
- 竹村茂「能‘羽衣’と世界の白鳥伝説、天女はどこへ帰っていったか」『融合文化研究』第一号 国際融合文化学会. 2002
- 谷川健一『白鳥伝説』(上下) 集英社. 1988
- 崔仁鶴『韓日昔話の比較研究』三弥井書店. 1995
- 直木孝次郎・西宮一民・岡田精司『日本書紀・風土記』(鑑賞日本古典文学2) 角川書店. 1977
- 中島悦次「竹取物語と羽衣説話」『解釈と鑑賞』23-2. 1958
- 西郷信綱『詩の発生』未来社. 1964
- 日本国語大辞典刊行会『日本国語大辞典(縮刷版)2』小学館. 1973
- 西宮一民 校注『古事記』新潮社.1969.
- 野村純一『昔話の森』大修館書店. 1998
- _____『昔話・伝説必携』学灯社. 1992
- 芳賀繁子「嫦娥伝説と竹取物語」『国文学科報』16号. 跡見学園女子大学国文学科.

1988

- 古川のり子「天人女房譚から一牛と犬」『学習院大学上代文学研究』12号. 学習院大学 上代文学研究. 1987
- 福田アジオ・新谷尚紀・湯川洋司・神田より子・中込睦子・渡邊欣雄『日本民族大辞典』吉川弘文館. 2000
- 本田義憲・池上洵一・小峯和明・森正人・阿部泰郎『説話の言説一口承・書承・媒体』勉誠社. 1991
- 松本信広『日本の神話』至文堂.1956
- 三浦佐之「寄り来る神の婚—その神話的性格と展開」『成城文芸』東京成城大学 文芸学部. 72号. 1975
- 宮田登ほか『日本「神話・伝説」総覧』新人物往来社. 1993
- 三村昌義「『羽衣』形成考」『三田国文』(No.2). 慶応義塾大学国文研究室. 1984
- 柳田国男『定本柳田国男集』(第五卷) 筑摩書房. 1962
- _____『昔話と文学』角川書店. 1971
- 山口欣一「神話・民話」『共立女子短期大学紀要』20集. 1977
- 楊静芳「中日七夕伝説における天の川の生成に関する比較研究」『学校教育学研究論集』25号. 東京学芸大学大学院連合学校教育学研究科. 2012